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

이홍일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

이홍일

차례

1장 왜 가치 전환인가?	15
1. 들어가며 : 건설산업 혁신의 린치핀을 찾아서	15
2.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의 체계	18
3.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필요성	20
4.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개념	23
(1) 가치 전환의 개념	23
(2)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개념	24
5. 본서의 저술 목적 및 접근법	26
(1) 저술 목적	26
(2) 다학제적 접근법	27
6. 건설산업 혁신 성공의 린치핀 가설	28
2장 가치 전환 위한 사회학적 접근	33
1. 일반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과 핵심가치 시사점	33
(1) 일반적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	33
(2) 국가 및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	42
(3)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 성공요인의 핵심가치 시사점	50
2. 사회발전단계 이론과 핵심가치 시사점	57
(1) 사회발전단계 이론	57
(2) 사회발전단계 이론의 핵심가치 시사점	64
3. 가치 전환 위한 핵심가치 도출	72

차례

3장 가치 전환 위한 인문학적 접근 79

1. 인문학 관점의 핵심가치 시사점 79

- (1) 인문학에 대한 정의 80
- (2) 인문학 관점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 81
- (3) 인문학 관점 적용한 주요 인물들과 사상 82
- (4) 인문학 관점의 핵심가치 시사점 89

2. ESG경영과 핵심가치 시사점 94

- (1) ESG경영의 핵심가치 시사점 94

4장 가치 전환 방향 및 과제 모색 103

1. 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8대 핵심가치 103

2.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방향 106

- (1) 개요 106
- (2) 인권침해 취약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108
- (3) 옥외 생산 및 생산현장 변경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110
- (4)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 치중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112
- (5) 종합적 협업 네트워크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114
- (6) 수주 및 인허가 의존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117
- (7) 성숙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119
- (8) 환경훼손 취약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121
- (9) 자본재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123
- (10) 소결 125

3.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의 개선 실행과제 126

차례

(1) 실행과제의 구성	126
(2) 인권침해 취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128
(3) 안전사고 취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129
(4)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 차증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131
(5) 가치사슬 참여주체 간 상호 대립·갈등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133
(6) 부패취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135
(7) 성숙산업의 혁신 미흡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138
(8) 환경훼손 취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도출	140
(9) 자본재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141
(10) 소결	142

맺음말	151
------------------	------------

참고문헌	157
-------------------	------------

표 차례

〈표 2-1〉 일반적인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	40
〈표 2-2〉 국가와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	48
〈표 2-3〉 로버트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사회발전단계 구분	59
〈표 2-4〉 고신뢰 사회와 저신뢰 사회의 비교	61
〈표 2-5〉 더글라스 노스의 제도 관점 사회발전단계 구분	63
〈표 2-6〉 사회발전단계의 3단계 구분 및 특징	65
〈표 2-7〉 사회발전단계와 시대별 건설산업 특성의 비교	69
〈표 2-8〉 사회학적 접근을 통한 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핵심가치 도출	74
〈표 3-1〉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	81
〈표 3-2〉 인문학 관점을 건설산업에 적용한 주요 인물들과 사상	90
〈표 3-3〉 건설산업 혁신에 대한 산업적 관점과 인문학적 관점 비교	91
〈표 3-4〉 주요 기관들의 ESG경영 정의에 포함된 핵심적 개념 요소	95
〈표 3-5〉 지속가능경영의 정의에 포함된 핵심적 개념 요소	96
〈표 3-6〉 ESG경영의 성과 창출 경로에 기초한 ESG경영의 핵심적 개념 요소	97
〈표 4-1〉 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핵심가치 도출 과정 및 결과	104
〈표 4-2〉 8대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개선 실행과제 구성	127
〈표 4-3〉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개선 실행과제	144

그림 차례

<그림 1-1> 과거 건설산업의 주요 혁신 방안	16
<그림 1-2> 건설산업 재탄생의 비전과 체계	19
<그림 1-3> 건설산업 재탄생 2.0의 비전과 체계	20
<그림 1-4>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 필요성	22
<그림 1-5>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실행주체	25
<그림 1-6>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을 위한 핵심가치 탐색 접근법	28
<그림 2-1>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순환모델	45
<그림 2-2> 조엘 모키어(Joel Mokyr)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문화	48
<그림 2-3>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들	51
<그림 2-4>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의 주요 결과물 및 문제점	53
<그림 2-5> 건설산업의 사회적 자본 구축과 산업 재탄생 성공	71
<그림 3-1> 인문학 관점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 의미	82
<그림 3-2> 인문학 관점 적용 통한 건설산업 핵심가치의 확장	93
<그림 3-3> ESG경영의 핵심가치(Core Value)	98
<그림 3-4> 기존 경영 패러다임과 ESG경영 패러다임의 가치(Value) 비교	99
<그림 4-1> 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8대 핵심가치(Core Value)	105
<그림 4-2> 8대 핵심가치 적용 통해 해결 모색이 가능한 건설산업의 문제점	108
<그림 4-3>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인권침해 취약 문제 개선방향	110
<그림 4-4>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취약 문제 개선방향	111
<그림 4-5>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 차중 문제 개선방향	114
<그림 4-6>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대립·갈등 문제 개선방향	117
<그림 4-7>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부패 취약 문제 개선방향	119
<그림 4-8>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혁신성장 미흡 문제 개선방향	121
<그림 4-9>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자연환경 훼손 문제 개선방향	123
<그림 4-10>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공동체 가치 미흡 문제 개선방향	124
<그림 4-11> 8대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향	125
<그림 5-1> 8대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가능성	155

발간사

건설산업은 인간의 삶에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나와 가족이 머무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문화예술·복지시설은 물론, 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 산업시설 등 도시 인프라와 국가 기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산업 활동은 건설이 형성한 공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을지라도,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자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적인 무대를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산업은 단순한 여러 산업 중 하나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늘 함께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굳건히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산업이 현재 단순한 침체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다단계 하도급 같은 불공정 관행,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저하라는 고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저성장 기조와 인구 감소,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물량 확대나 수주 중심의 양적 성장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산업의 존립을 장담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생산방식 변화 수준을 넘어 사람·조직·제도·교육을 포괄해 생태계 전반을 완전히 바꾸는 ‘건설산업의 대전환’으로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5년 3월 개원 30주년을 맞아 세미나 개최와 책자 발간을 통해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동안의 혁신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적 개선을 넘어선 산업

재탄생 수준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이 단순한 시공업을 넘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3대 원칙(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을 중심으로, 산업 중점 가치의 재정립, 생산체계의 디지털 전환, 건설시장 및 상품 혁신 관련 전략과제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혁신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건설산업 재탄생 2.0’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건설산업 재탄생’이 담론을 넘어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람(People)·거버넌스(Governance)·기술(Technology)을 3대 실행 기반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건설산업이 인공지능 대전환(AI)과 연계해 건설 생태계 변혁을 비롯한 건설산업 재탄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및 기술의 대전환과 함께 사람과 연관된 가치의 대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치 대전환(Value Transformation)이란 산업의 모든 참여주체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가치관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산업 내 다수 구성원이 공유한 의식과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은 거버넌스 및 기술 대전환 못지않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연구한 변화 관리 이론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에 직면할 때 처음에는 부정하거나 거부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다 결국 주변 환경이 생존을 위협하는 ‘죽음의 계곡’ 같은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낡은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산업 내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가치 변화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까지, 스스로 먼저 의식과 가치관을 쇠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재탄생 2.0’에 인적 요소인 ‘가치 대전환’

을 3대 실행 기반 중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는 가치 전환 없이는 산업의 재탄생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생산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팽배한 업역 이기주의와 눈앞의 수익 극대화라는 가치관을 극복하고, '상생과 공영'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굳건히 자리 잡지 않는다면 어떠한 혁신 전략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를 건설한다'는 큰 뜻 아래 모든 참여주체가 하나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길,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 대전환에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산업 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 대전환이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현상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산업 차원의 자료 검토를 넘어 사회학과 인문학적 관점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의 혁신 성공 요인과 국가·사회 단위의 혁신 성공요인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 산업이 선진화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 요소에 대해서도 고찰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성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 관점에서도 건설을 바라보며,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건설산업의 본래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요소는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이외에도 ESG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설산업의 새로운 가치 요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가치 요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종적으로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을 위한 8대 핵심가치를 도출했습니다.

8대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 및 삶의 질 관련 3대 가치(인권·안전·웰니스), 건설산업을 신뢰와 상생 기반 위에 다시 세우는 사회적 자본 관련 2대 가치(상생·윤리), 산업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가치인 혁신성장,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관련 2대 가치(환경·공동체)로 이뤄져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이 8대 핵심가치들이 어떻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재탄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8대 핵심가치들을 접목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8대 핵심가치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가치 대전환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 정책 당국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건설산업이 사람, 거버넌스, 기술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산업으로 재탄생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충재



01

**왜
가치 전환인가?**

1 들어가며 : 건설산업 혁신의 린치핀을 찾아서

건설산업은 주거 공간부터 문화·복지시설, 그리고 국가 기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필수적 공간을 제공하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단순한 침체를 넘어 생존 자체와 직결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다단계 하도급 같은 불공정 관행,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저하와 같은 내부적 한계뿐만 아니라 저성장 기조와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단순한 건설 물량 확대, 신기술 도입 수준을 벗어나 사람과 조직, 제도, 교육 등 생태계 전반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근본적인 ‘건설산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한 다양한 혁신 시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 1990년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 압력 등의 환경 변화로 산업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 성장이 정체되며 활력을 잃은 것이 혁신 시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건설산업은 1990년대 건설투자가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초고속 성장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 건설투자는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뿐 구조적 성장세는 완전히 멈추었다. 지난 20여 년간 실질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머물며 완연히 성숙국면에 들어선 모습을 보였다.

2010년대 초반에는 일본식 장기불황, 즉 건설투자가 쇠퇴 국면에 접어들어 건설투자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 2014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투자 장기전망 보고서 발간을 통해 아직 건설산업이 쇠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쇠퇴 국면 진입은 2030년대 중후반 이후에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¹⁾ 실제 건설투자는 쇠퇴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 초고속 성장기의 활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분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이 이전의 활력을 잃은 것과 함께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건설산업에 대한 혁신 시도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1999년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2001년에 ‘한국건설 비전 2025’, 2004년에 ‘건설산업선진화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후에도 건설산업 선진화와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10년 이상 반복되었고, 유사한 선진화 방안들과 혁신 전략들이 많아 다소 혼동될 정도였다.

〈그림 1-1〉 과거 건설산업의 주요 혁신 방안



자료 : 이복남·이슬기, 한국건설의 미래 생태계 설계 주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022.12.

심지어 2010년 5월에 어느 대학 교수님의 정년 기념으로 발간된 책의 제목은 ‘건설산업, 왜 아직도 혁신인가’였다.²⁾ 15년도 더 지난 지금 시점에 동

1) 이홍일, 박철한,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7.
2) 김수삼 편저, ‘건설산업 왜 아직도 혁신인가’, 생각의 나무, 2010.5.

일한 제목의 책이 발간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건설산업은 여전히 혁신이 화두이다. 지난 2025년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책의 제목은 ‘한국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이다. 건설산업은 왜 아직도 여전히 혁신을 외치고 있는가? 오랜 기간 동안 왜 혁신의 구호를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본 저서를 서술하게 된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유는 아직까지 전통적 건설산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수직·수평적 업역 세분화, 가치사슬 협업 주체 간 대립과 갈등, 생산체계의 혁신 미흡, 선진국 대비 낮은 생산성, 부정적 산업 이미지 등 오랫동안 지적된 건설산업의 문제가 아직 여전하다. 원인을 단순하게 가정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건설산업은 태생적,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불가능한 산업이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산업 혁신 전략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에 발표된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을 비롯해 기존 혁신 전략과 방안을 살펴보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건설산업의 주요성과 지표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양호하다. 선진국에서 건설산업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은 건설산업이 태생적,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산업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반복된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여러 혁신 운동의 시도와 혁신 방안들의 내용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존의 다양한 건설산업 혁신 전략과 방안들에 무엇인가 중요한 과제가 빠진 것은 아닐까? 본서는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에 공통적으로 반복된 전략이나 과제에 주목하는 대신, 기존의 혁신 방안들에서 다루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린치핀(Linchpin)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마차나 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바퀴 축에 꽂는 작은 핀이 린치핀인데, 이 작은 핀 하나가 없으면 커다란 마차와 수레도 굴러갈 수가 없다. 과연 건설산업 혁신 성공의 린치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혁신을 화두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혁신 방안들이 건설산업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건설산업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보다는 기존 혁신 방안들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바로 건설산업 혁신 성공의 린치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저서의 목적은 이 린치핀에 대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의 체계3)

건설산업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생산성 정체, 기술혁신 부진,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으며,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5년 3월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을 모두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민산업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전략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이 특정 계층이나 기업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활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현재 건설산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의 단순한 개선을 넘어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5년 3월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과 2026년 4월 발간한 '건설산업 재탄생 2.0 총론'에 수록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했다.

우선 현재의 건설산업을 모두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민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비전 실현을 위해 4Re 산업으로의 재탄생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4Re는 Responsible(책무를 다하는), Revolutionary(혁신을 추구하는), Reliable(신뢰할 수 있는), Resilient(변화에 대응하는)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4Re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산업의 재탄생 전략으로 공정·상생(Fairness & Win-Win), 융합·확장(Integration & Expansion), 자율·혁신(Autonomy & Innovation)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산업중점가치의 대전환, 산업체계 대전환, 건설시장과 상품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그림 1-2〉 건설산업 재탄생의 비전과 체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 2025.3.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4월 7일에는 세미나와 별도 책자 발간을 통해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을 고도화한 ‘건설산업 재탄생 2.0’ 전략을 제시했다. ‘건설산업 재탄생 2.0’은 건설산업 재탄생이 담론을 넘어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람(People), 거버넌스(Governance), 기술(Technology)을 산업 재탄생을 위한 3대 실행 기반으로 제시하며 10대 전략과제를 포함했다.

〈그림 1-3〉 건설산업 재탄생 2.0의 비전과 체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재탄생 2.0 총론, 2026.4.

3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필요성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 체계에서는 3대 전략 분야 중 첫 번째를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으로 선정했고, 건설산업 재탄생 2.0 전략 체계에서 강조한 3대 실행 기반에서도 사람을 거버넌스, 기술보다 먼저 제시했다. 이는 건설산업 재탄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의 거버넌스와 기술, 시장의 혁신과 더불어 인적 요소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인적 요소 혁신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설산업의 재탄생 성공을 위해서 건설산업 참여주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건설 생산체계 혁신, AI 기술과 스마트 건설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산업체계 대전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이 성공하더라도 건설산업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핵심가치의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근본적인 건설산업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

된 집단과 개인의 이익만을 내세워 계속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에 집착해 상호 이익이나 배려를 등한시한다면, 생산성 저하, 기술 및 상품 혁신의 부족, 안전사고의 지속 그리고 불공정 관행 등은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더 나아가 환경, 사회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의 혁신이 없다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2장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한 산업, 더 나아가 국가나 사회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기술, 인적자원 등의 혁신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가치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에 기업이나 산업,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변화 관리 이론이 혁신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엘 모키어(Joel Mokyr)는 기존 질서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혁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기득권층의 저항 감소와 같은 혁신 성장의 문화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 즉 재탄생을 위해서도 산업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가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성숙국면을 지속했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와 업역 구조, 사업 수행 방식과 산업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 등이 고착화되어 혁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산업 혁신전략 수립과 전략과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왔던 건설생산 체계 및 건설업역 간 장벽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4) Joel Mokyr, A Culture of Growth: The Origins of the Modern Economy, 2016.

추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전략과 방안들은 산업 제도, 생태계, 기술혁신,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전략과제들을 반복해 포함했지만, 혁신성장 문화 조성을 비롯해 산업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가치와 관련된 과제들은 거의 포함하지 못했다. 이것이 기존 건설산업 혁신 전략과 방안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 산업 거버넌스 체계의 대전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기술 대전환과 함께 산업 가치의 대전환이 건설산업 재탄생 성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일 수 있다.

결국 건설산업의 재탄생에 있어서 산업 거버넌스 체계의 대전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기술 대전환과 함께 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산업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 구체적으로 핵심가치에 대한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4〉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 필요성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 2025.3.

(1) 가치 전환의 개념

가치 전환(Value Transformation)이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내재화되어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치 요소들을 중요하게 공감하고, 마침내 사회 집단 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 전환의 개념을 주장한 인사는 대표적으로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가 있다. 니체는 ‘모든 가치의 전환(Umwertung aller Werte)’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오랫동안 유럽 문명을 지배해온 전통적 가치와 도덕적 요소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가치 요소로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을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⁵⁾ 그리고 전통적 가치 요소에 지배받지 않고, 새로운 가치 요소를 발견하고 이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개인을 초인(Übermensch)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켰다.⁶⁾

가치 전환의 개념은 이러한 철학적 배경 외에도 최근에는 물질적 소비와 성장 중심에서 시간, 환경, 공동체, 웰빙 등 비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태도 변화와 같은 사회학적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경영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고비용 구조를 깨고, 동시에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가치 혁신(Value Innovation)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치 혁신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가치 요소의 변화보다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혁신에 초점을 둔다.

가치 혁신의 개념은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의 김위찬 교수

5) Thomas H. Brobjer(2010.3), “Nietzsche’s Revaluation of All Valu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12. ; 최종천, 니체의 가치전환, 한국니체학회, 니체연구 제17집.

6) 이영수(2009.10), ‘니체의 “위버멘쉬”(초인)에 대한 원형(元型) 탐색’,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58집.

와 르네 마보안(Renee Mauborgne) 교수의 대표 저서인 ‘블루오션 전략’(2005)에서 대표적 전략 수단으로 제시되어 이후 경영학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념으로 부상했다. 블루오션 전략에서 언급된 가치 혁신은 전통적 경영전략 이론에서 주장하는 차별화 혹은 가격 전략과 같이 품질과 가격 중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즉 블루오션 전략은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가치 창출에 중요한 요인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고객의 관점에서 치르는 가격을 뚜렷이 넘어서는 가치를 혁신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이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⁷⁾

본 저서에서는 경영학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가치 혁신’보다는 철학적, 사회학적 관점의 개념인 ‘가치 전환’의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가치 대전환을 다루고자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서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가치 전환’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존의 가치 요소 대신 미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치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 집단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치 요소 중 핵심적으로 중요한 가치 요소를 가치 전환의 핵심가치(Core Value)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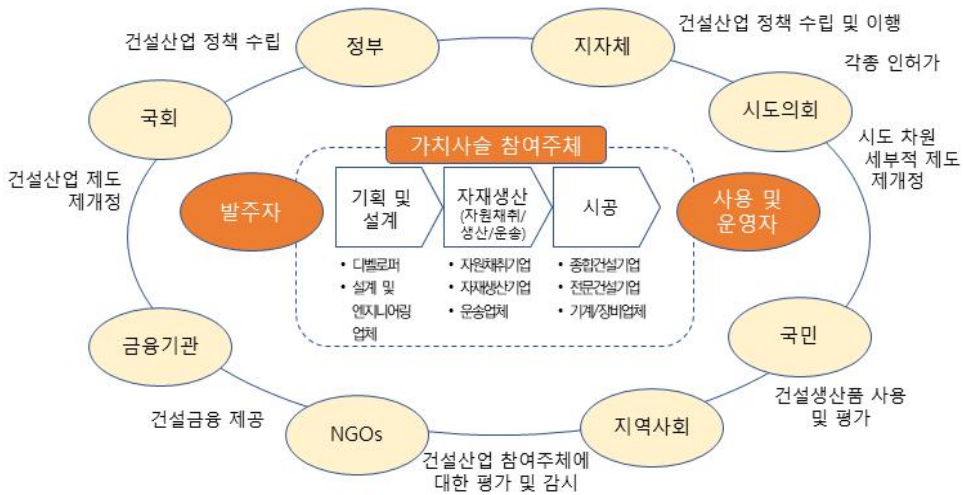
이상에서 기술한 가치 전환(Value Transformation)의 개념을 건설산업에 적용하면, 건설산업의 가치 전환이란 건설산업의 구성원들, 즉 건설기업을 비롯한 건설산업의 다양한 참여주체의 구성원들이 향후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핵심가치 요소들을 가치 있게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을 말

7) 김위찬·르네 마보안, 블루오션 전략, 교보문고, 2005.4.

한다. 더 나아가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핵심가치 요소들이 건설산업 내 보편적 의식이자 문화, 더 나아가 비공식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 내에는 건설기업, 건설자재 제조기업, 엔지니어링 업체 등 가치사슬 참여주체 이외에 정부, 지자체, 발주자, 금융기관 등 광의의 참여주체들도 건설산업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건설산업의 가치가 전환된다는 것은 건설기업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참여주체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핵심가치를 중요한 의식적 요소로 인식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내 전체 구성원에 새로운 핵심가치가 확산되고 산업 내 보편적 의식이자 문화, 더 나아가 비공식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실행주체



본 저서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향후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해 필요한 가치 요소 중 하나인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이라는 가치 요소가 핵심가치로 공유될 경우 건설산업 대부분의 구성원은 생산체계 혁신, 업역 구

조 혁신 등 여러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하고자 할 것이다. 창조적 갈등관리 및 소통·합의가 핵심가치로 자리잡을 경우 건설산업의 여러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참여주체의 구성원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수정·보완, 합의하고, 이를 통해 결국 혁신 방안의 이행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⁸⁾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등을 비롯한 새로운 핵심가치 요소들을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여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건설산업의 가치 대전환이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핵심가치를 공유할 산업 구성원들은 건설기업과 같은 협의의 참여주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발주자, 금융기관 등 광의의 참여주체 구성원들도 다함께 새로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내 진정한 가치 대전환이 가능하고, 이는 더 나아가 건설산업 체계 대전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의 기초가 되며, 결국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가능케 한다.

5 본서의 저술 목적 및 접근법

(1) 저술 목적

건설산업의 가치 대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 혁신 성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산업 구성원들의 공유가 필요한 핵심가치(Core Value)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동 핵심가치를 건설산업 구성원들이 공유 및 내재화하고, 산업 내 모든 참여주체가 핵심가치에 기초하여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본서의 제4장에서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8대 핵심가치를 최종적으로 요약해 제시하며,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창조적 갈등관리 및 소통·합의는 8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혁신 성장의 세부 가치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본서는 건설산업 재탄생의 3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인 ‘산업 중점 가치 대전환’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핵심가치의 재설정과 이 핵심가치의 산업 내 확산과 공유를 위한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했다.

(2) 다학제적 접근법

건설산업의 가치 대전환을 위한 핵심가치 재설정을 위해 본서는 2025년 3월에 제시된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에 비해 보다 폭넓은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건설산업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가치관의 변화가 사람의 심리 및 사회적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건설산업 차원의 자료 검토를 넘어 사회학과 인문학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본서는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에 공통적으로 반복된 전략이나 과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다 폭넓은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선 건설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이 아닌 일반적인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핵심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음으로 산업을 넘어 국가나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떤 국가와 사회가 선진화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연구한 국가 및 사회의 선진화 혹은 발전단계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반 산업과 국가 및 사회의 혁신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들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단계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혁신에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가치들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즉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에 빠진 가치 전환과 관련된 단서를 보다 폭 넓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찾고자 한다.

건설산업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가치관이 인간의 심리와 같은 인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학 이론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이론을

활용한 다학제적 접근도 시도하고자 한다.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건설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설산업 혁신 방향과 성공, 그리고 핵심 가치에 대한 착안점을 얻고자 한다. 건설산업 재탄생의 성공을 위한 핵심가치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저서의 다학제적 접근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6〉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을 위한 핵심가치 탐색 접근법



6 건설산업 혁신 성공의 린치핀 가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본서는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전략과 방안들에 반복적으로 포함된 과제에 주목하는 대신, 기존의 혁신 방안들에서 다루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것이 건설산업 혁신 성공의 린치핀(Linchpin)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의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건설 산업체계 대전환, 건설 시장·상품 대전환과 관련된 과제들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포함되었다. 물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5년 3월에 발간한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에는 건설 산업체계 대전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과 관련된 기존의 혁신 방안들과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여러 세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혁신 방안들과 세부적 과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혁신 방안들이 가치 전환 관련 과제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후 본론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⁹⁾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윤리경영 확산 등과 같은 일부 과제를 제외하면, 기존의 산업 혁신 방안들에서 산업 구성원의 의식·태도, 가치와 관련된 과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물론 건설산업 구성원의 의식·태도, 가치와 관련된 과제가 산업의 혁신 방안에 별도 과제로 포함되기에는 정책·제도, 기술개발 등과 달리 사람의 의식이나 가치와 같은 정신적 영역과 관련된 과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건설산업은 혁신 전략과 방안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신이 화두인 산업, 생산체계 및 업역구조 개편 등과 같이 20여 년 전 혁신 방안에 포함된 과제와 최근의 혁신 과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산업, 그 원인이 건설산업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기존의 혁신 방안들이 놓친 것에 주목하는 역발상이 그 언제보다 절실하다.

이에 본서는 기존의 건설산업 전략과 혁신 방안들에 산업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와 관련된 가치 전환 과제가 소홀히 다뤄진 것이 기존의 혁신 방안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물론 기존 혁신전략과 방안들이 발표만 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체계와 실행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서

9)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전략과 방안들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검토는 ‘제2장 가치 전환 위한 사회학적 접근’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는 실행력 확보 실패도 근본적으로 산업 내 혁신 수용성과 개방성 부족, 그리고 혁신성장이 핵심가치로 내재화되지 못한 것과 같은 구성원들의 의식·태도, 가치 영역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국 건설산업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 가치의 전환은 오랜 기간 혁신의 구호를 반복하며 꿈꿔왔던 건설산업 혁신 성공, 건설산업 재탄생의 린치핀(Linchpin)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02

**가치 전환 위한
사회학적 접근**

1 일반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과 핵심가치 시사점

건설산업의 성공적인 혁신과 가치 대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핵심가치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가치 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산업의 혁신 성공요인,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 그리고 사회발전단계 이론까지 폭넓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기존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서 부족했던 가치 전환의 단서를 찾고, 향후 산업 재탄생에 필요한 핵심가치의 전환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일반적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

건설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의 혁신 성공요인에 대하여 경제학이나 행정학, 그리고 경영학의 세부 분야인 산업조직론, 기술정책론 등에서 관심을 갖고 선행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정보통신(ICT)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혹은 4차 산업혁명이 산업 혁신의 키워드로 부상했다. 동시에 산업 단위나 기업 단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혁신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뤄졌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기 전인 2000년대 이후에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산업 혁신 클러스터(Cluster)를 성공적으로 조성, 운영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었다. 이에 산업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이뤄졌는데,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국가 단위의 산업보다 규모 측면에서는 소규모이지만, 혁신의 성공요인은 국가 단위 산업과 지

역 단위 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성공요인과 관련한 몇몇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핵심가치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①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와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우위 약화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과 더불어 산업의 혁신성장이라는 개념이 화두로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서 중장기적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미래 전략을 마련했던 미래준비위원회에서 2017년 발간한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 미래전략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략을 4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¹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과 기술 영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혁신 역량, 국가 인프라, 사회 정서와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전일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4대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으로 기업과 산업은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자기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낡은 생산 및 소비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

10)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2017),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 미래전략 보고서”.

째는 혁신창출 역량 제고로서 단순한 저비용 경쟁력의 의미가 퇴색하는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학·연은 혁신창출 역량을 공동으로 키워야 한다. 기초적인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의 시스템을 개방형·참여형 혁신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활약할 차세대 핵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는 제도와 인프라의 마련으로 정부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 개선과 더불어, 자동화 및 데이터화가 고도화되고 초연결성이 증대되는 미래 지능 정보사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데이터 인프라와 시스템 인프라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넷째는 새로운 문화와 윤리의 확립으로 미래 사회의 혜택을 다수가 누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와 윤리가 조성되어야 한다. 상호작용이 심화되는 사회에 발맞춰 신뢰와 공유의 문화를 형성하여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자연환경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윤리를 내재화하여 협업적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태성(2018)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산업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과제’라는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투자, 생태계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첫째는 기업가정신의 회복으로 혁신의 주체는 기업가이며, 정부는 시장에서 직접 플레이하기보다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혁신투자 촉진으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증가함에도 투자가 부진한 원인은 불확실성, 단기 성과 중심 경영, 그리고 규제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혁신, 테스트베드 제공, 공공조달 확대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셋째, 상생 생태계 조성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11) 박태성(2018.7), “산업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과제”, KIET 산업경제.

협력과 공유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유가치 창출과 동반성장을 통해 포용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성태경(2020)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했다.¹²⁾ 그 결과, 그는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의 10가지 주요 성공요인을 정리해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조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프로젝트와 기업의 비전·목표 간의 일치성이 필요하다. 둘째, 최고 경영층 지원으로 최고 경영층의 관심, 자원 제공 및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는 명확한 방향 제시와 동기 부여 리더십이 필요하다. 넷째, 변화관리로 신기술 도입에 따른 구성원의 저항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프로젝트 관리로 일정, 예산, 범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여섯째, 팀워크로 구성원 간의 협력 및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일곱째, 소통으로 참여주체 간 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여덟째, 교육훈련으로 신기술 활용을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홉째, 조직문화로 혁신을 수용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하다. 열번째, 의사결정 위양으로 실무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실행 도모가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과 기술 영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혁신 역량, 국가 인프라, 사회 정서와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전일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② 산업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비교적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김용환(2005)의 ‘해외 주요 산업클러스터의

12) 성태경(2020.3),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비스연구, 제10권 제1호.

성공사례 및 시사점’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를 기초로 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¹³⁾ 첫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부, 대학, 민간 기업 등 각 주체의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둘째는 정부의 효율적 정책 추진과 서비스 지원 체제 강화로 정부는 지역별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R&D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상업화, 금융,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는 클러스터 내 참여주체 간 네트워킹 및 협력체제 강화로 산·학·연·관 간의 공식·비공식적 교류와 협력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클러스터 내 기관과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집적지와와의 협약 체결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는 대학의 역할 강화 및 산학 연계로 대학은 공동 연구, 컨설팅, 아이디어 제공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이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할 부여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클러스터에 대한 규제 완화로 클러스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교육 및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클러스터 발전의 원천이 된다.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내 교육, 문화, 주거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4년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혁신 클러스터 성공요인과 개도국 클러스터 지원 사례’ 연구보고서에서도 선행 연구들이나 성공한 클러스터들의 사례 등을 통해 클러스터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¹⁴⁾ 첫째는 클러스터 참여주체들의 역량 강화이다. 참여주체들은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개별 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 지원이나 네트워크 축

13) 김용환(2005.6), “해외 주요 산업클러스터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2호.
 14) 김세원 외(2014.12), “혁신 클러스터 성공요인과 개도국 클러스터 지원 사례”, 산업연구원.

진 등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지역 및 중앙 정부, 클러스터 기업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을 들 수 있다.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 개별 참여주체들의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즉 클러스터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술력, 근로자의 숙련 정도, 정부기관의 생산성이나 정책 효율성 등이 개선될 경우 해당 클러스터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둘째는 네트워크와 협력관계의 구축이다. 클러스터 내 주체들 간의 지식 공유와 확산,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력이나 파급효과는 개별 기업 차원의 생산성이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상승효과는 특히 혁신과정 전반을 통해 극대화한다. 대학, 연구소 등 지식 원천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는 기업 혁신의 필수 요건이다. 셋째는 클러스터 환경의 개선이다. 물리적인 환경 즉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발전시설, 수자원 관리 시스템 등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및 경쟁력은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다. 물류 생산성이 낙후된 경우 생산비 등이 증가하고 기업들에 매력적인 입지가 될 수 없으므로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형성과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화되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나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인 여건 등도 클러스터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별 기업 차원의 혁신역량의 개선은 물론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물론, 질적 측면의 환경 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 연구자 중에서 Lyon and Baruffi Jr.(2011)는 미국 미시간 지역의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면서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성공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첫째는 특화된 지식의 공

유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와 주체 간 협력관계 구축이다. 둘째는 혁신 시스템의 작동이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R&D뿐만 아니라 기술 상용화 역량, 디자인, 마케팅, 인력 개발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의 존재 여부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의 발생은 혁신과정에서 지원기관의 존재와 클러스터 주체들 간의 협력과 소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는 해당 클러스터 지역의 인력과 기술력 수준이다. 해당 지역에 노동시장이 발달해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 확보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의 유치와 해당 클러스터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대기업을 비롯한 거점기업의 역할이다. 클러스터는 종종 가치사슬 내에 있는 다수 수요자와 공급자 기업들이 집적되어 특정 산업을 구성하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진 클러스터에서 대기업과 같은 핵심 거점기업들은 관련된 중소기업들에 지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은 물론 이들 기업들에 일정한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거점기업의 역할을 통해 기업 간 협력과 상생구조가 형성될 경우 해당 클러스터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는 벤처캐피털이 초기 상업화 단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 여부이다. 여섯째는 해당 지역의 수요가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이어서 기업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경우 클러스터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수요자 요구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클러스터 조성 시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들과의 역할 분담 내지 보완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③ 소결

이상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 산업클러스터 성공요인 관련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일반적인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과 관련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15) Lyon, T. P., & Baruffi Jr, R. A.(2011), "Creating a Plug-In Electric Vehicle Industry Cluster in Michigan : Prospects and Policy Options", Michigan Telecomm. & Tech. Law Review.

〈표 2-1〉 일반적인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

구분	성공요인
정책·제도 및 지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촉진 정책·제도 마련 · 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 · 정책·제도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일관적·장기적 정책 추진
산업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생태계 구축 · 산업 생태계 참여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산학연 협력 및 참여주체 협력체계 구축,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
인적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인재 및 전문인력 공급 원활 · 인적 역량 고도화, 교육훈련 체계 확보·개선, 인재양성 투자 지속 · 교육, 문화, 주거 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생산성 혁신 지속 · 기술 혁신 인프라 구축 · 시장·수요 반영 개방형 기술 혁신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지향적 문화의 조성 · 산업 내 참여주체 간 협업 및 소통 문화 · 참여주체 간 신뢰와 상생 문화 · 혁신에 대한 수용적·개방적 문화, 저항에 대한 변화관리

첫째, 정책·제도와 인프라의 조성으로 정부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제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지원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R&D 기능 강화와 연구 결과의 상업화, 금융, 컨설팅, 교육 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과 더불어 혁신 기술의 테스트베드 제공, 공공조달 확대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둘째,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성공적 산업 혁신은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닌 개방형·참여형 혁신 생태계에서 비롯된다. 산업 내 참여주체들 간의 지식 공유와 확산,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력이나 파급효과는 개별 기업 차원의 생산성이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연구소 등 지식 원천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

기업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상승효과는 혁신과정 전반을 통해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 등 산업 내 참여주체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은 공동 연구와 아이디어 제공의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과 같은 거점기업은 중소기업에 지식을 확산하고 시장을 제공하여 상생과 동반성장의 포용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적 역량 고도화로 산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 내 우수 인재 유입 및 역량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인적 역량 고도화를 위해 신기술 도입에 맞춘 구성원 교육훈련과 차세대 핵심 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발달도 중요하다. 나아가 우수한 연구 및 기술 인력을 해당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 문화, 주거 환경 등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주 여건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혁신 인프라 및 환경 조성으로 산업 혁신의 성공은 지속적인 기술과 생산성 혁신의 성공에 의해 실현가능하다. 따라서 혁신 기술의 연구 상업화, 금융,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성을 뒷받침할 강력한 데이터 인프라와 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도로, 항만과 같은 전통적, 물리적인 환경의 고도화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관리 체계가 요구되며,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통한 상용화 단계의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혁신이 시장 수요를 잘 반영해야 하며, 해당 지역 소비자의 수요가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일 경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어 혁신의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다섯째, 혁신 문화의 조성으로 산업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혁신 문화가 산업 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산업 생태계 내 협력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 신뢰와 소통·공유의 문화를 형성해야 하고, 협력과 신뢰,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윤리와 협업적 상생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낡은 시스템과 프로세스, 관행을 혁신하고 미래형 산업 모델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혁신 지향적 문화의 조성도 필요하다. 산업 내 참여주체들과 구성원들의 저항을 관리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혁신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2) 국가 및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

① 국가 및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의 범위를 넘어 국가나 사회 단위의 혁신 시도에 대한 성공 및 실패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도 시도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관한 연구’(2022), ‘INNOVATIVE KOREA :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2024)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원조를 받던 빈곤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국가 발전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핵심 성공요인들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발전단계에 맞춘 치밀한 혁신성장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보았으며, 크게 3단계로 발전단계를 구분했다. 우선 1960~70년대는 도입기로 해외 기술 모방 및 조립 단계로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며 생산인프라를 구축했다. 두 번째는 추격기(1980~90년대)로 자체 R&D역량 강화, 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했다. 세 번째는 선도기(2000년대 이후)로 ICT 강국으로 도약한 시기로 세계 최초 기술개발에 집중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다. 이러한 국가의 발전단계별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은 개도국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적 성공요인과 관련된 교훈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첫째,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의 성장과 혁신 성공의 핵심 성공요인은 정부의 장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리더십과 지속적인 지원이다. 둘째, 초기 혁신체계 구축으로 발전 초기부터 정부출연연구소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NIS)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셋째, 발전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초기에는 기술 흡수와 확산에 집중하고, 역량이 성숙함에 따라 선도적 혁신으로 나아가는 '역량 에스컬레이터'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민관 협력으로 초기에는 정부와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 기반을 닦고, 이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민관협작이 중요하다. 다섯째, 인적자본의 질로서 교육 및 훈련체계 등에 대한 투자가 연구와 혁신의 규모와 질을 결정한다. 여섯째, 대기업의 역할로서 대기업 중심의 민간부문은 대규모 R&D 투자와 지식 흡수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일곱째,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및 고성장 스타트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덟째, 효율적인 지원 제도로 포괄적 시스템도 유효하지만, 개별 국가가 처한 역량에 맞춰 간소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되 세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아홉째, 보완적 투자로 R&D투자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 금융 접근성 등 보완적 역량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열 번째,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ICT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통해 기술 흡수를 촉진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국가 혁신의 3대 성공요인, 즉 한국의 혁신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로 다음 세 가지의 조화를 꼽았다. 첫째, 정부의 의지로 명확한 국가 비전 제시와 전략적 자원 배분, 둘째, 인적자본으로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고속련 노동자 공급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셋째, 민관 협력으로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혁신 성공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방형

혁신에서 파괴적 혁신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전략 방향으로는 첫째,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로 추격자 전략의 한계, 즉 더 이상 따라갈 모델이 없으므로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둘째, 디지털 및 그린 전환으로 AI, 탄소중립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혁신성장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셋째, 포용적 혁신으로 기술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포용적, 상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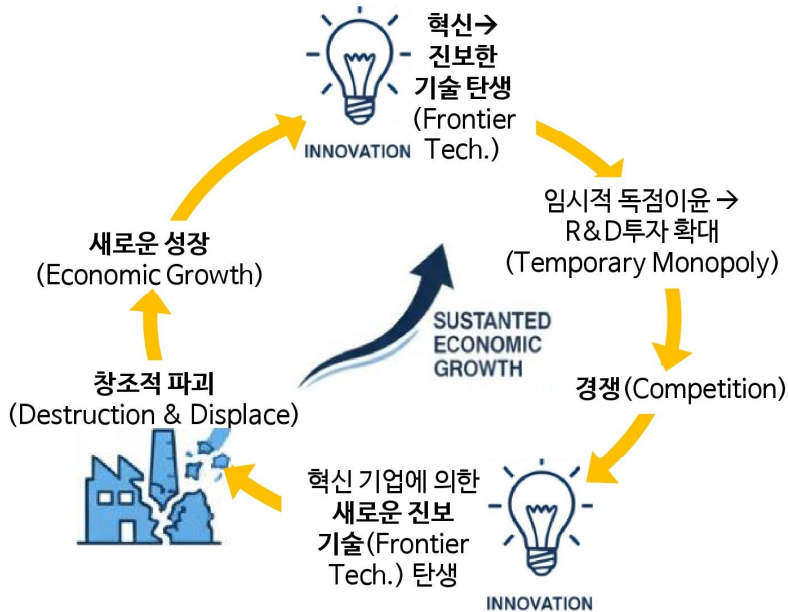
②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 지속가능한 성장의 순환모델

국가 및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과 관련된 연구 중 지난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과 피터 하윗(Peter Howitt)은 1992년 저술한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에서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순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¹⁶⁾

16) Philippe Aghion & Peter Howitt,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1992.

〈그림 2-1〉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순환모델



주 : Philippe Aghion & Peter Howitt(1992) 자료를 기초로 지속 가능한 성장 순환 모델을 개념화함.
 자료 : Philippe Aghion & Peter Howitt,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1992.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은 기술혁신을 외생변수로 규정했던 기존 신고전 학파 경제학자들과 달리 기술혁신을 내생변수, 즉 경제 시스템 내부의 이윤 추구 행위 중 하나로 이해했다. 그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탄생한 진보된 기술 (Frontier Tech.)이 해당 기술개발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임시적인 독점이윤을 누리게 하고, 이 독점이윤이 진보 기술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진보 기술을 통한 독점적 시장지배 기간은 한정적이며, 언젠가 다른 혁신기업이 더 나은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선도 기업을 대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업과 기술, 시장의 독점이윤 창출 메커니즘에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등장과 더 나은 진보 기술의 개발과 이를 통한 창조적 파괴 현상

은 모두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정부는 선도 기업이 일정 기간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선도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이 기업들이 독점이윤으로 진보 기술의 R&D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장 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새로운 혁신 기업과 더 나은 진보 기술이 등장해 창조적 파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라는 경제 성장의 2개 바퀴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순환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문화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과 함께 공동으로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키어(Joel Mokyr)는 2016년 그의 대표 저서 '성장의 문화(A Culture of Growth)'에서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요소에 대해 깊이 조명하였다. 조엘 모키어는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원을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유럽 계몽주의 시대의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산업혁명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물질적 진보(Material Progress)에 대한 해당 사회의 태도(Attitudes)와 지식에 대한 가치관(Values)이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 궤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의 토대가 되는 지식을 유용한 지식(Useful Knowledge)으로 통칭하고, 이 지식에는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과 처방적 지식(Prescriptive Knowledge)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제적 지식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대한 과학적이고 이

론적인 지식이며, 처방적 지식은 특정 기계를 만들고 작동시키는 것과 같이 실제 무엇인가를 만드는 생산방법과 작동하게 하는 기술과 관련된 실용적 지식이다. 조엘 모키어는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이 서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선순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적 성장이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는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이 서로 분리되어 명제적 지식이 실용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과 성장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조엘 모키어는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이 상호 간에 지속적인 선순환 피드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성장의 문화(Culture of Growth)가 유용한 지식(Useful Knowledge)과 더불어 결정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조엘 모키어가 설명한 성장의 문화는 호기심을 장려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며, 토론과 지식의 공유를 장려하는 사회의 태도와 가치관(Values)이 융합된 사회 규범이다. 반대로 그는 유용한 지식을 활용한 혁신을 저지하려는 사회 기득권층의 저항이 혁신을 통한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 18세기에 확산된 계몽주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에 대해 개방적이며 변화를 적극 허용하는 사회적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결국 조엘 모키어는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성장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용한 지식, 즉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의 선순환 피드백에 의해 가능한 성장은 유용한 지식만이 아니라 호기심과 토론, 지식의 공유를 장려하며, 권위에 도전하고 기득권층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성장 문화의 구축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2-2〉 조엘 모키어(Joel Mokyr)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문화



주 : Joel Mokyr(2016) 자료를 기초로 지속 성장 위한 지식과 사회 문화를 개념화함.
 자료 : Joel Mokyr, A Culture of Growth: The Origins of the Modern Economy, 2016.

③ 소결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국가나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과 관련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2〉 국가와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

구분	성공요인
정부 리더십 및 정책·제도·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 및 전략적 자원 배분 · 국가·사회 발전단계에 맞춘 정책·제도 마련 및 실행 · 국가·사회 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
혁신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 및 혁신 생태계 구축 · 국가 연구기관·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의 역할분담 생태계 구축 · 혁신 기업에 의한 창조적 파괴 가능한 경쟁 메커니즘 작동
인적자본 및 지식 선순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인적자본 확보 · 교육 및 훈련체계 투자 통한 인적자본의 역량 고도화 · 기초 과학 지식과 실용적 지식의 선순환 체계 통한 혁신성장 달성
혁신성장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 혁신 수용적, 개방적인 사회·문화적 가치관 정립 · 성장의 문화(Culture of Growth) 구축 : 호기심 장려, 권위 도전 허용, 토론과 지식 공유 장려 · 기존 기득권층의 혁신에 대한 저항 극복, 저항에 대한 변화관리

첫째,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맞춤형 정책·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국가와 사회의 혁신은 정부의 장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명확한 비전 제시와 전략적 자원 배분에서 출발한다. 혁신 성공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NIS)와 같은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이후 지속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사회 발전 단계에 맞춘 세밀한 지원 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적 기반과 관련해 정부는 혁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선도 기업에 일시적인 독점이윤을 보장하여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 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여 끊임없는 혁신이 창조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 균형 잡힌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민관 협력과 창조적 파괴가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제도적 기반과 기초기술 R&D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초기 혁신 기반을 닦고 위험을 분담하면, 민간 부문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주도적으로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다. 대규모 R&D 투자로 수출 경쟁력을 이끄는 대기업의 역할과 더불어, 중소기업 및 고성장 스타트업이 역동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창업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혁신기업이 더 나은 기술로 시장에 진입해 기존 선도 기업을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현상이 산업 생태계 내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활발히 일어나야 기술혁신이 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자생적이고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다.

셋째, 우수한 인적자본과 유용한 지식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혁신의 질과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은 교육 및 훈련 체계의 투자를 통한 고숙련 노동자 공급과 우수 인재 유치 등 인적자본의 고도화이다. 이렇게 축적된 지적 역량을 바탕으로 기초과학 영역인 자연 원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명제적 지식’과 실제 생산과 작동에 쓰이는 실용적인 ‘처방적 지식’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강력한 선순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형성해야만 산업혁명과 같은 거대한 혁신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넷째, 혁신에 대해 개방적인 혁신 수용성과 개방성 등 ‘성장의 문화’ 정착과 기득권 저항 극복이 필요하다.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를 수용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호기심을 장려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며, 토론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성장의 문화(Culture of Growth)’가 사회 전반의 비공식 규범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용한 지식을 활용한 혁신을 저지하려는 기존 사회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혁신을 완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3)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 성공요인의 핵심가치 시사점

① 기존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주요 과제

이제 다음으로 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들을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과 한번 비교해 보자. 대표적인 4개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의 주요 과제들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3〉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들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 성장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확충 	건설기술·건설문화 선진화(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문화 혁신 기반 조성 • 공공선도 프로젝트 시행 •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스탠다드 생산체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권·책임 성과 공공발주시스템 혁신 •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관계 혁신 • 투명성 제고와 부패척결 • 세계일류산업으로 도약기반 조성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 생산구조 혁신 • 시장질서 혁신 • 일자리 혁신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전략 세미나, 2025.3.

2007년 ‘건설기술·건설문화 선진화 전략’에서는 건축문화 혁신 기반조성 과제가 포함되었고, 2008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공공 발주시스템 혁신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산업을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여 기술·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2005년 12월 정식 출범했다. 이후 2007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기술·건설문화 선진화 전략’이 발표되었고, 건축기본법 제정과 ‘군(郡) 단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등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방안이 시도되었다.

2007년 ‘건설기술·건설문화 선진화 전략’이 공공건축물이 가격 외에 품격 있는 디자인을 중시하도록 공공 건설시장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최저가 위주의 틀에 박힌 설계 도면을 양산하던 건축설계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건설기술·건설문화 선진화 전략’은 애초 표방했던 건설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생산체계 구축과 같은 전체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기존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그대로 두고,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자체가 건축설계업의 발전에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2개의 기본법이 병렬적으로 제정됨으로써 시공과 설계 업역간의 장벽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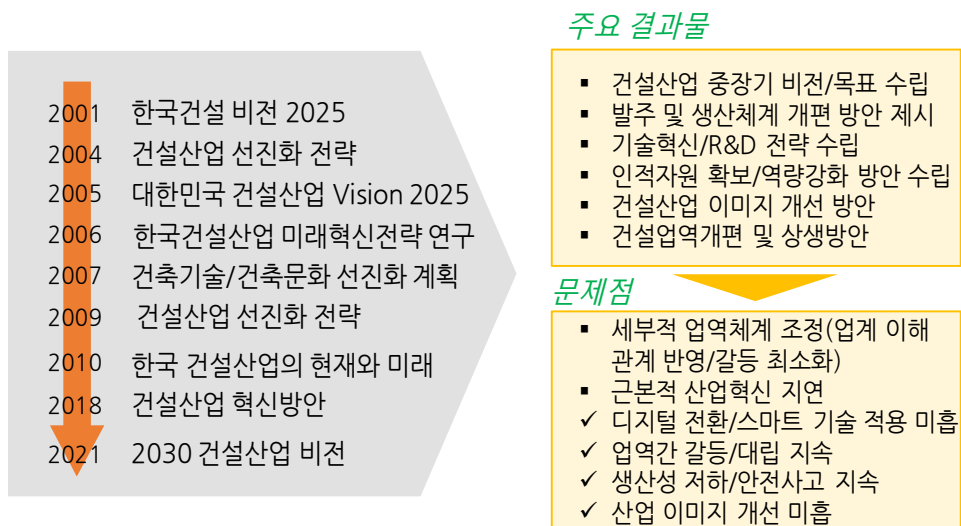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역시 2008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 개편되어 운영되었다. 기본법의 병렬적 제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조직에서도 전체 건설산업의 혁신보다는 건축설계업에 국한해 혁신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건축설계 분야에 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의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한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원래 취지와 위원회의 이름대로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자문 기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진다.

초대 김진애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민간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 이슈를 다루기에는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아쉬움이 남는데, 건축설계와 기술분야를 넘어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 이슈와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혁신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가 오랫동안 활동했다면 건설산업 혁신은 좀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을 논의하고 다루지 못한 것 역시 기존의 시공과 건축설계, 종합과 전문건설 등의 파편화된 업역의 장벽이 공고하고 워낙 이슈가 복잡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2008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공공 발주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한 것

역시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이었다.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발주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외에도 2001년에 발표된 ‘한국건설 비전 2025’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의 주요 결과물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2-4〉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의 주요 결과물 및 문제점



다수의 혁신 방안은 건설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전략과제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요약하면 대체적으로 기술혁신 및 R&D 전략과제,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방안, 건설 생산체계와 건설업역 개편 및 상생방안,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방안 등이 주로 포함되었다.

②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 성공요인의 핵심가치 시사점

기존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의 주요 결과물과 앞서 살펴본 산업 및 국가·사

회 혁신의 성공요인을 상호 비교하면,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혁신 방안들이 정책·제도, 산업 생태계, 기술혁신,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과제들은 어느 정도 포함했으나,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에서 제시된 혁신성장 문화, 세부적으로 혁신 수용성·개방성, 호기심·토론·지식공유 장려, 기득권층의 혁신에 대한 저항극복 등과 같은 문화를 산업 내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은 거의 포함하지 못했다. 즉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에서 제시된 제도 및 자원과 관련된 과제들은 포함했지만, 산업 참여 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와 관련된 과제는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에서 거의 다루지지 않았다.

물론 혁신 수용성·개방성, 혁신에 대한 저항극복 등이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별도 과제로 포함되기에는 정책·제도, 기술혁신 등과 달리 사람의 의식이나 가치와 같은 정신적 영역과 관련된 과제라는 점에서 별도 과제로 포함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산업혁신과 국가·사회의 성공요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에서 구성원의 혁신 수용성·개방성 등과 같은 혁신성장 문화 조성을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였고, 기존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에 이와 관련된 과제가 제외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면, 혁신성장 문화 조성 부족이 그동안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의 성과가 미흡했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산업 혁신전략 수립과 전략과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왔던 건설 생산체계 및 건설업역 간 장벽의 근본적인 혁신은 이뤄지지 못했다. 개별 건설업역 내에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협단체, 조합 등의 이해관계 주체들이 존재하고, 생산체계 및 업역 개편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들의 이해관계는 근본적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수차례 반복된 혁신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검열 제한 기

준 완화, 건설업 등록 기준 조정,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조정 등과 같이 세부적인 개선 방안들만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 생산 체계 및 건설업역간 장벽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산업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기술의 적용은 타 산업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수직·수평적 업역 세분화, 가치사슬 협력주체간 대립 및 갈등, 기술혁신이 미흡한 산업 이미지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체계 혁신과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선진국 대비 낮은 생산성의 획기적인 혁신 역시 항상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져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혁신 수용성·개방성, 신뢰·상생·소통, 기득권층 저항극복 등과 같은 산업 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와 관련된 과제들을 포함하지 못한 때문은 아닐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이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에서 제시된 제도, 산업 생태계, 기술혁신,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전략과제들은 반복해 포함했지만, 혁신성장 문화 조성을 위한 산업 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와 관련된 과제들은 거의 포함하지 못했다. 이것이 기존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특히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대표 저서를 종합해 보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지식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성장문화(Culture of Growth)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장려하는 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 완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결국 특정 국가나 사회가 성장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 즉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과 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

반이 되는 사회문화, 곧 혁신성장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지식 및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장려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사회 전반의 규범으로 정착되고, 이를 통해 기득권층의 저항이 완화될 때 비로소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사회 혁신의 성공요인을 분류한 표에서 제시한 사회 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 관련 요인 가운데 혁신 수용성과 개방성 등 혁신성장 문화를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역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은 제도 및 자원 구축과 관련된 과제들은 여러 번 포함했지만, 산업 구성원들의 의식 및 가치 변화와 관련된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포함하지 못하였다. 결국 기존의 수 없이 반복된 건설산업 혁신 전략과 방안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산업 내 구성원들의 의식 및 가치 영역의 변화와 관련된 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관련된 성과도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을 분석하는 제기하고자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건설산업 역시 생산성과 기술혁신 자체에는 집중하였으나,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산업 구성원의 의식과 가치 변화, 곧 혁신성장 문화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기 때문에 혁신이 제한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로 건설산업은 생산체계 혁신이나 업역구조 개편과 같은 혁신 과제들이 거의 매번 혁신 방안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개선하는 데 그쳤고 근본적 혁신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건설산업 내 새로운 지식을 확산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산업 구성원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산업 전반의 문화이자 사회적 규범으

로 정착되고, 이를 통해 혁신 수용성과 개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토론, 지식공유가 장려되고, 기득권층의 변화 저항까지 극복될 때 비로소 생산체제 혁신,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근본적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2 사회발전단계 이론과 핵심가치 시사점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학 분야에서는 국가나 사회가 보다 선진화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 요소에 대해 탐색하는 몇몇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절에서는 이 연구들을 통해서 건설산업이 보다 선진화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사회발전단계 이론

① 로버트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이론에 기초한 사회발전단계

사회발전단계 이론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의 사회적 자본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이론을 체계화한 미국의 정치학자로서 사회적 신뢰, 비공식 규범 등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그는 1993년 저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Making Democracy Work)'에서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지역 지방정부들의 성과 차이를 분석하며 비시민공동체(Uncivic Community)에서 시민공동체(Civic Community)로 사회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¹⁷⁾

17) Putnam, R.D.(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그는 1970년대 이탈리아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하며 생겨난 지방정부들의 성과를 약 20년 동안 정책 신뢰성, 효율성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측정,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에밀리아 로마냐 등 북부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 반면, 시칠리아를 비롯한 남부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고 성과가 부진했다. 북부나 남부 지역의 지방정부들 모두 한 국가 내에서 동일한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역적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성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퍼트넘은 매우 흥미롭게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 지방정부들의 이러한 성과 차이가 지역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사회 문화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로버트 퍼트넘은 그의 저서에서 이탈리아 지방정부들의 성과 차이의 핵심적 원인이 시민공동체(Civic Community)의 발전 유무, 즉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상호 호혜적 규범(Norms of Reciprocity),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s)와 같은 시민참여 네트워크(Networks of Civic Engagement)의 발달 유무에 있음을 밝혔다. 로버트 퍼트넘은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성과 차이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해당 지역의 오래된 시민들의 전통에 뿌리내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통칭하였다. 이로 인해 로버트 퍼트넘의 동 저서는 사회적 자본 연구분야를 개척한 획기적 고전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들이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로버트 퍼트넘의 저서에서는 사회발전단계를 엄밀히 계통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지방정부들의 성과 차이를 분석하며 핵심적으로 언급한 시민공동체(Civic Community)의 발전 수준과 수준별 사회적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 자발적 결사체 활성화 수준 등의 특성을 기초로 사회발전단계를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3〉 로버트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사회발전단계 구분

구분	특징
시민공동체 (Civic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내의 상한 신뢰 존재, 신뢰로 인한 상호 협력 및 자발적 결사체 (협동조합 등) 활성화 · 활발한 민주적 참여와 효율적 정부 운영 ·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사례 :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밀리아 로마냐 등)
중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동체와 비시민공동체의 특성이 혼합된 중간 단계 · 비시민공동체에서 시민공동체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보이는 특성 · 사례 : 이탈리아 중부 지역(라치오 등)
비시민공동체 (Uncivic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위계적 권위에 의한 작동, 일부 엘리트 계층에 의한 통제·지배 · 사회 내의 낮은 신뢰 부족, 신뢰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협력 부족, 사회 내 민간부문의 자발적 결사체 부족 · 사회적 성과 미흡, 사회 내 비효율과 부패 증가 · 사례 : 이탈리아 남부 지역(시칠리아 등)

주 : 로버트 퍼트남의 저서를 기초로 요약 재구성함.

자료 : Putnam, R.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시민공동체(Civic Community) 단계는 사회적 신뢰, 즉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수준이 높고, 자발적으로 수평적 시민 결사체(Associations)가 조직되어 상호 호혜적인 규범과 윤리적 규범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이다. 반면, 비시민공동체 단계는 사회적 신뢰가 낮아 이탈리아 남부와 같이 가족이나 친족 중심의 거래관계와 기업이 발달하고, 상호 호혜적 규범이나 윤리적 규범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 단계이다. 즉 사람의 의식이나 태도, 기치관 등에 신뢰, 상호 호혜성, 윤리성 등이 규범적인 문화로 형성되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신 비시민공동체는 권위적, 수직적 위계관계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이 통제되는 사회이다. 중간 수준의 사회 단계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일부 지역처럼 북부의 시민공동체 특성과 남부의 비시민공동체 특성이 혼합되어 점진적 이행이 나타나는 사회 단계이다. 결론적으로 로버트 퍼트남은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시민공동체로의 사회발전이 민주주의 사회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②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뢰에 기초한 사회발전단계

일본계 미국인 3세로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Y. Fukuyama)도 1995년 그의 저서 ‘신뢰 : 사회적 덕목과 번영의 창조(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사회 발전의 토대임을 강조했다.¹⁸⁾ 그는 사회 유형을 신뢰 수준과 사회적 자본에 따라 저신뢰 사회(Low-Trust Societies)와 고신뢰 사회(High-Trust Societies)로 구분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신뢰란 공유된 규범에 기반한 정직하고 협력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로 정의된다. 고신뢰 사회에는 윤리규범과 같이 사회 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규범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 규범을 준수함에 따라 상호간에 공유된 규범에 기초해 정직하고 협력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 즉 신뢰가 높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 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작용하여 거래관계와 협력, 대규모 기업의 생성을 촉진하게 된다.

고신뢰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관련이 되어있는데, 특정 사회에 신뢰, 즉 공유된 규범에 기반해 정직하고 협력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수록 거래비용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거래와 협력이 증가하고, 대규모 기업이 등장할 수 있으며,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후쿠야마는 분석했다. 반대로 사회 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의 경우 타인과의 연대가 약해 혁신이 더뎠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법률과 규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국가의 개입과 규제의 심화를 초래하여 결국 시스템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후쿠야마는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며, 자유주의적 경제 제도도 건강한 시민사회와 신뢰 문화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신

18) Fukuyama, F.(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사회 변영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다. 후쿠야마가 구분한 저신뢰 사회(Low-Trust Societies)와 고신뢰 사회(High-Trust Societies) 유형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4〉 고신뢰 사회와 저신뢰 사회의 비교

구분	고신뢰 사회	저신뢰 사회
해당 국가	· 미국, 일본, 독일, 스칸디나비아 (자발적 결사 전통이 강함)	·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가족주의/국가 중심 성향이 강함)
기업 구조	· 가족 기반 기업에서 대규모의 비인격적 기업(Large Impersonal Organizations)으로 용이하게 확장 가능	· 가족 기반 기업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 외 구성원에게 신뢰가 부족하여 대규모 조직 생성에 어려움
민간의 자발적 결사체	· 가족과 국가 사이의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Socialization)가 풍부함(시민 사회 활발)	· 가족 외 중간 조직이 부족하며, 대규모 조직이 필요한 경우 국가나 관료주의가 큰 역할을 담당

주 : 후쿠야마 저서를 기초로 요약 재구성함.

자료 : Fukuyama, F.(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③ 더글러스 노스의 신제도주의 관점 사회발전단계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을 대표하는 미국의 경제 사학자인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의 대표 저서인 1990년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1990)'에서도 퍼트남(1993), 후쿠야마(1995)와 유사한 주장이 있다.¹⁹⁾ 노스(North)는 사회발전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저서를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Institution)가 사회의 경제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원시 제도 환경(Primitive Institutional Settings), 공식 제도 형성(Formal Rules/Legal Systems), 비공식 제도 형성(Informal Constraints) 사회로 구분하였다.

19) North, D.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노스가 언급하는 제도란 사회의 게임규칙, 인간이 만든 상호작용의 제약으로 정의되며, 이는 공식적 제도(법률, 규정)와 비공식적 제도(관습, 규범, 신념 등)를 모두 포함한다. 노스는 제도가 한 사회의 정보 비용·거래 비용을 줄이고, 인간 행동에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해 경제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경제 성장이 촉진되지만, 잘못된 제도는 장기적 경로 의존(Path Dependency)에 묶여 침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 과정에서 제도의 관점으로 사회를 원시제도환경, 공식제도형성과 비공식제도형성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원시제도환경에서는 권력 통치, 즉 권력이나 전통에 의한 강압적 통치가 이뤄지고, 법·제도가 미흡하다. 공식제도 형성단계에서는 공식 법·제도가 명문화되고, 법·제도에 의한 통치가 일반화된다. 최종적으로 비공식제도 형성단계에서는 공식적 법·제도를 넘어서 신뢰, 윤리, 관용, 호혜성 등의 비공식적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내재화되어 자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거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거래와 협력관계의 효율이 제고된다.

〈표 2-5〉 더글라스 노스의 제도 관점 사회발전단계 구분

구분	특징
원시 제도 환경 (Primitive Institutional Sett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와 폭력적 질서에 의한 지배 ·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권력과 단순한 전통에 의한 통치 · 공식적 법·제도가 미흡하며, 낮은 사회 신뢰 수준 · 매우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수준
공식 제도 형성 (Formal Rules/Legal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 법·제도(사유 재산권, 계약법 등) 명문화 · 국가에 의한 법·제도의 강제력 확보, 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존재 · 공식적 법·제도 외의 비공식 제도 형성 미흡 → 법·제도로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존재
비공식 제도 형성 (Informal Constrai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 법·제도 외에 신뢰, 윤리, 호혜 등의 사회 내 내재화와 비공식 규범으로 작동 · 공식적 법·제도에 의한 통치를 넘어 비공식 규범에 의한 자율적 작동 · 매우 낮은 거래비용 수준과 활발한 사회 내 상호작용

주 : 더글라스 노스의 저서를 기초로 요약 재구성함.

자료 : North, D.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④ 요한 갈통의 평화발전이론에 기초한 사회발전단계

현대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그의 저서 'Peace by Peaceful Means :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1996)에서 단순히 전쟁이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의 부재 상태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의 창조적 관리가 중요함을 주장했다.²⁰⁾ 그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를 넘어서 사회 구조나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구조적 폭력(예 : 빈곤, 차별). 그리고 특정 사회의 문화적, 이념적, 종교적 측면이 구조적,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문화적 폭력도 해결해야 함을 주장했다.

20) Galtung, Johan(1996), "Peace by Peaceful Means :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 SAGE".

그리고 갈등은 이러한 사회 평화의 발전을 위해 갈등의 창조적 관리(Creative Conflict Management)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갈등은 초월적 방법(Transcend Method)이라는 구체적 갈등 전환 방식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는 대화, 평화적인 목표 재설정, 창의적 문제 해결, 비폭력적 상호작용에 기반한다. 갈등에 따르면, 창조적 갈등관리와 전환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해소, 사회 정의(Positive Peace)의 실현, 인간 잠재력의 개방적 발현으로 이어진다.

(2) 사회발전단계 이론의 핵심가치 시사점

① 사회발전단계의 3단계 구분 및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발전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종합해 사회발전단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권력사회, 법치사회, 시민사회의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권력사회, 법치사회, 시민사회 명칭은 선행 연구를 참조해 저자가 부여한 것으로 원시제도사회, 제도사회, 신뢰사회 등과 같이 다른 명칭을 부여할 수도 있다. 핵심은 사회발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각 단계별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권력사회 단계

권력사회는 법·제도나 사회 규범, 사회구성원의 공유가치(Shared Value) 보다는 권력에 기초한 권위적, 수직적 위계에 의해 통치되고 작동되는 사회이다. 로버트 퍼트넘이 사례로 분석한 이탈리아 남부처럼 국가의 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정치적 엘리트와 같은 사회 권력에 의한 권위적 위계가 작동하는 사회이다. 시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 법·제도보다는 권력층과의 비공식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사회의 신뢰 수준이 낮으며, 시민 간의 수평적 연대와 자발적 결사

체, 대규모 기업의 형성이 어렵고, 친족이나 가족 위주의 거래관계와 소규모 기업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권력사회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사회적 자본이론 관련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저신뢰사회의 특성과 노스(Douglass North)의 신제도론에서 언급된 원시제도환경(Primitive Institutional Settings)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표 2-6〉 사회발전단계의 3단계 구분 및 특징

사회발전단계	특징
1단계 : 권력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보다 권력에 의한 통치 · 권위적, 수직적 위계에 의한 작동 · 신뢰, 상호 호혜, 윤리의식 등 사회적 자본 매우 부족 · 정경유착, 부패·뇌물 등 만연
2단계 : 법치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에 의한 지배·작동 · 권력에 의한 권위적, 수직적 위계와 통치 약화 · 법·제도의 원칙 수립 및 세부적 규정 마련 중요
3단계 :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가치, 시민의식 등에 의한 지배·작동 · 신뢰, 상호 호혜, 윤리 등 공유가치의 구성원 내재화 및 비공식 규범화 · 비공식 규범의 법·제도 한계 보완 및 사회 선진화 추진

□ 법치사회 단계

다음으로 법치사회는 권력에 의한 권위적, 수직적 위계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 단계를 넘어 공식적인 법·제도에 의해 지배되고 작동되는 사회이다. 법치사회에서는 권력에 의한 초법적(超法的) 통치 행위가 거의 사라지고, 이에 따라 정경유착, 뇌물공여와 같은 부패도 크게 개선되며, 정의로운 법·제도의 원칙 확보와 동시에 세부적 법·제도 규정의 마련과 지속적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나 세부적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경우 규제 강화의 부작용과 함께 무엇보다 법·제도를 통해 모든 사회적 행동과 관계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이로써 법·제도의 근간에 존재하는 근본 정신과 가치를 사회 참여주체들이 공유하는 문화이자 무형자산으로 축적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노스의 신제도론에서 공식제도형성 단계에 해당하

는 단계이며, 로버트 퍼트넘의 비시민공동체와 시민공동체,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사회적 자본이론상의 저신뢰사회와 고신뢰사회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사회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 시민사회 단계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권력이나 법·제도에 의해 작동되는 단계를 넘어 사회 구성원에 내재화된 신뢰, 상호호혜, 윤리 등 사회 구성원의 공유가치(Shared Value)에 의해 작동되고 지배되는 사회이다. 이 공유가치는 시민사회의 대부분 구성원에게 내재화되어 있어 명문화된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한다. 즉 상호 신뢰 및 호혜, 윤리 등의 공유가치가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에 내재화되고 사회문화와 관습으로 정착됨에 따라 법·제도와 같은 공식적 규범 못지않게 비공식적 규범으로 작동하며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오히려 법·제도를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거나 적용이 모호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사회 구성원에 내재화되고 규범화된 공유가치와 시민의식은 구성원이 이에 맞춰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작동하는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성숙될수록 공유가치와 시민의식의 내재화, 규범화 수준은 더욱 강력해져서 법·제도 규정의 모호성 문제뿐만 아니라 규제 심화, 제도적 허점 악용 등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퍼트넘의 시민공동체, 후쿠야마의 사회적 자본이론상의 고신뢰사회, 노스의 신제도론에서 비공식제도 형성 단계, 요한 갈통의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② 사회발전단계와 시대별 건설산업의 특성 비교

□ 1990년대 이전 건설산업의 권력사회 특성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과거 1980년대 이전에는 권력사회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권력사회의 특징이 강하였다. 법과 제도보다는 권력층에 의한 권위적, 수직적 위계에 의해 사회가 움직였고, 건설산업도 정경유착, 뇌물공여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특히 수주 의존 산업인 동시에 인허가 의존 특성이 있어 뇌물공여와 같은 부패에 기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권력사회 특성이 결합되어, 과거 건설산업에는 정경유착, 뇌물공여 등의 부패 문제가 타 산업에 비해 다소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상당 기간 동안 건설산업은 정경유착과 부패 비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왔다.

□ 현재 건설산업의 법치사회 특성과 시민사회 도약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사회발전 3단계 중 법치사회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이후에도 가끔씩 건설산업의 부패문제가 언론상에 등장한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이전에 비해 이러한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 건설산업은 법·제도의 세부적 규정 마련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은 안전사고 1위 산업의 오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오고 있다. 건설 생산체계와 업역구조 역시 그동안 겸업 제한 범위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세부적 제도개선을 지속하다가 2018년 말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업역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렇게 건설산업은 현재 지속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업 선진화와 산

업 성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지속적인 법·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의 혁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정도로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건설안전 문제 역시 처벌 규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이후 업역규제 철폐, 업종체계 개선, 등록기준 조정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설 생산체계의 선진화와 생산성의 획기적인 개선은 이루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의 업역규제 철폐 조치가 과거의 부분적인 생산체계 개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변화인 것은 분명하나, 여전히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역이 존재하고 있고, 업역 간 공식, 비공식적 장벽이 상당한 상황이다.

앞서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존 질서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혁신 수용성과 개방성이 필요하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처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 즉 재탄생을 위해서도 이러한 가치와 문화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2-7〉 사회발전단계와 시대별 건설산업 특성의 비교

구분	주요 특성	시대별 건설산업 특성	건설산업에의 시사점
권력사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보다 권력에 의한 지배·작동 · 지배 권력층과의 관계 형성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980년대 이전 건설산업은 권력사회 특성 보유 · 정경유착, 부패/뇌물 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시민사회로 도약하기에 한계 존재 ·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민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집중 필요 · 건설산업이 시민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상생·윤리 등) 탐색 및 해당 가치의 내재화 방안 모색 필요
법치사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에 의한 지배·작동 · 체계적이고 상세한 법·제도 구축 및 지속적 보완·개선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이후 건설산업 법치사회 특성 보유, 권력사회 유산(부패·뇌물 등) 일부 존재 · 산업발전 위한 법·제도 보완 지속 · 법·제도 개선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적 요소·가치 관련 문제(상생·윤리 등) 직면 · 법·제도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자 상호간 대립·갈등으로 법·제도 개선 취지 훼손, 근본적 산업 혁신 지연 	
시민사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가치·의식·문화에 의한 지배·작동 · 핵심적 공유 가치·의식·문화에 대한 탐색 및 내재화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건설산업은 공유 가치·의식·문화가 참여주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시민사회로 발전 필요 · 건설산업 내 사회적 자본 구축이 중요 	

③ 사회발전단계 이론의 핵심가치 시사점

사회발전단계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참조할 때 건설산업도 시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공유가치 중 신뢰, 상호 호혜, 내재된 윤리규범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때 건설산업 내 거래비용 및 규제비용을 감소시키고, 산업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에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구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종합, 전문건설업계와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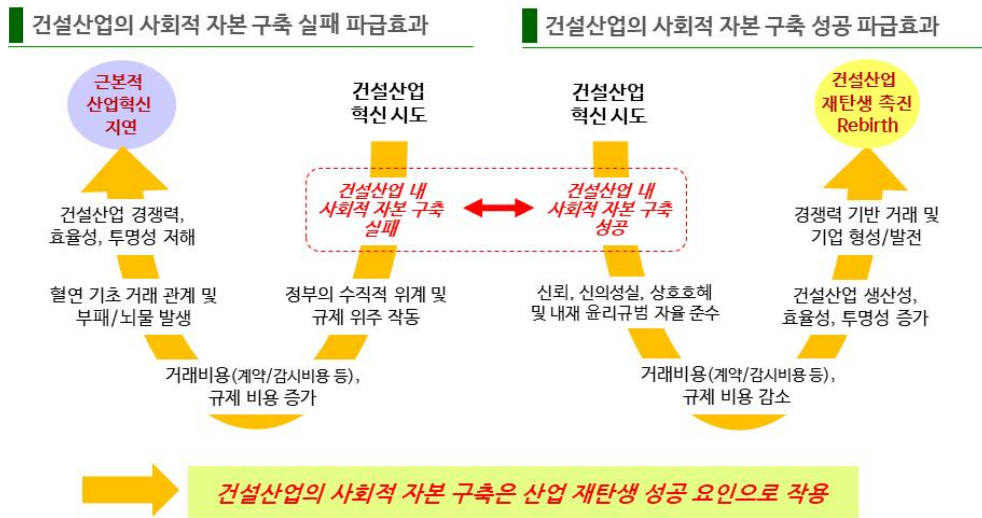
및 장비업계 등 모든 건설산업 참여주체 구성원들이 안전 제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안전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획기적인 안전사고 절감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 인허가 의존 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부패에 취약한 태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은 우리나라 사회가 권력사회를 지나 이미 법치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경우 권력사회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과 부패, 뇌물 등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건설산업 내 신뢰, 상생, 윤리의식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 구축에 실패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법치사회를 지나 시민사회로 나아가려는 단계임에도 건설산업에는 권력층의 권위적, 수직적 위계에 의한 지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패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경우 신뢰, 상생, 윤리의식과 같은 사회적 자본 구축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 내 기업뿐만 아니라 발주자, 정부 등 모든 참여주체가 법·제도와 더불어 윤리규범에 대한 자율적 준수를 핵심가치로 여기고, 상대방도 이러한 핵심가치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가 산업 내 형성될 때 건설산업의 부패문제의 해결과 함께 거래비용, 규제비용 등과 같은 비효율성도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건설산업 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경우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지적했듯이 기업 간 거래는 인맥에 의한 거래관계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에 기초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촉진되고, 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건설산업의 수주산업, 인허가 의존 특성으로 인한 부패발생 취약성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 내 사회적 자본 구축은 건설산업의 권력사회로의 회귀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치사회에서 시민사회 단계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건설산업 내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해 구체적으로 부패, 뇌물 문제를 줄이고, 계약비용과 규제비용을 줄여 산업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에 기반한 거래를 활성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의 등장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5〉 건설산업의 사회적 자본 구축과 산업 재탄생 성공



또한,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평화발전이론을 참조할 때 건설산업이 시민사회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창조적 갈등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생산체계 개편 등 주요 법·제도 개선 시도 시 매번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으로 최초의 법·제도 개편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저서를 참조할 때 갈등 자체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 갈등을 어떻게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삼느냐가 건설산업의 발전

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요한 갈통도 지적했듯이 단순히 갈등·폭력이 없는 상태(Negative Peace)가 아니라, 갈등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해관계 집단 간의 적극적 대화와 상호이해, 협력 등을 통해 창조적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대립과 갈등을 잠재우기에만 치중하며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창조적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을 통해 정의롭고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를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건설산업의 혁신 방안에는 법·제도의 개선사항과 더불어 건설산업이 시민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상생, 윤리의식 등과 같은 핵심적인 공유가치의 탐색과 이 핵심가치의 산업 구성원 내 확산 및 내재화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 소통 커뮤니티 구축 등의 구체적 방안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내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혁신성장 문화, 소통·상호작용 및 창조적 갈등관리, 신뢰·상생·윤리 등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때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 곧 산업 재탄생은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3 가치 전환 위한 핵심가치 도출

이상에서 일반적인 산업 혁신과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 그리고 사회 발전단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위해 필요한 핵심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유추해 보았다. 그 결과, 향후 건설산업의 혁신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혁신 방안들에서 거의 다루지 못했던 산업 구성원의 의식과 관련된 가치 전환(Value Transformation)과 관련된 과제의 도출과 이행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산업 및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볼 때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관행 탈피 및 창조적 파괴 시도, 기득권층의 저항 극복 등이 중요하고, 사회발전단계 관련 연구들을 기초로 볼 때 신뢰, 윤리, 상호 호혜, 창조적 갈등관리 등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가치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인 산업 혁신과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 그리고 사회발전단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한 시사점들을 기초로 향후 건설산업의 혁신 성공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가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최종 도출된 핵심가치들을 구분해 보면, 향후 건설산업이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성장문화와 관련된 가치 요소들과 건설산업이 법치사회를 넘어 시민사회 단계로 선진화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본 관련 가치 요소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사회학적 접근을 통한 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핵심가치 도출

구분	주요 내용	핵심가치 도출
일반 산업혁신 성공요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지향적 문화 조성 - 혁신 수용성·개방성, 소통·공감대, 신뢰·상생, 저항에 대한 변화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 혁신에 대한 수용성 - 혁신에 대한 개방적 문화
국가·사회 혁신 성공요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수용성·공감대, 자발적 참여 및 주도 - 혁신 필요성 및 비전 공감대, 변화 수용 -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 · 혁신성장문화 - 혁신 및 변화에 대한 개방성 - 혁신 성장 위한 기존 관행 탈피 및 창조적 파괴 - 기득권층 저항 극복 · 소통·상호작용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문화 -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의사결정 - 참여자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혁신 공감대 - 혁신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소통·공감대 형성 · 창조적 파괴 및 관행 탈피 - 혁신성장 위한 관행 탈피, 창조적 파괴 적극 시도 - 기득권층 저항 극복 · 소통·상호작용 및 창조적 갈등관리·합의 문화 -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의사결정 - 참여자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합의
사회 발전단계 이론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신의성실, 상호 호혜 · 윤리 내재화 및 비공식적 규범화, 자율적 규범 준수 · 창조적 갈등관리 - 대화·상호작용 통한 상생 및 공영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및 상생 - 신뢰, 신의성실, 상호 호혜, 상생 및 공영 · 내재화된 윤리의식 - 윤리의식 내재화 및 비공식 규범화, 자율적 윤리규범 준수

주 : 일반 산업혁신 성공요인, 국가·사회 혁신 성공요인, 사회 발전단계 이론의 시사점은 핵심가치와 관련된 시사점 들만을 정리함.

먼저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 문화의 산업 내 정착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창조적 파괴 및 관행 탈피, 창조적 갈등관리(소통 및 합의) 문화가 필요하다.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은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과 변화에 대해 항상 개방적인 자세와 혁신 방향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자세이며, 이러한 혁신 수용성과 개방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 및 관행 탈피는 혁신성장을 위해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창조적 파괴를 적극 시도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해 창조적 파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창조적 갈등관리는

혁신 필요성과 혁신 방향과 관련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의하는 문화이다. 이러한 적극적 소통과 합의 문화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통을 실시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창조적 갈등관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설산업이 법치사회 수준을 넘어 시민사회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핵심가치는 신뢰 및 상생, 내재화된 윤리이다. 신뢰 및 상생은 건설산업 구성원 상호 간에 공식·비공식적 규범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에 기초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존재하고, 상호 호혜적 행동을 통해 상생과 공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뢰와 상생을 산업 구성원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내재화된 윤리의식은 건설산업 구성원들에게 윤리의식이 내재화되어 비공식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공식 윤리규범을 공식적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의식의 내재화를 산업 구성원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03

**가치 전환 위한
인문학적 접근**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위해 필요한 핵심가치와 관련해 사회학 못지않게 인문학에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최근 들어 인문학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는데²¹⁾, 어떻게 보면 건설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인문학과 전혀 무관치 않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한 건설상품을 짓는 것이 목적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건설과 산업의 혁신을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미 승효상, 정기용 등 다수 인물들이 건설은 인문학적 행위라는 언급을 하고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재탄생, 특별히 가치 대전환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이 전혀 낯선 시도가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주시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1 인문학 관점의 핵심가치 시사점

먼저 인문학의 정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인문학 관점에서 건설산업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인문학 관점에서 건설산업을 바라본 기존의 인물들과 사상들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 방향과 핵심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1) 2026년 2월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인문학 관점에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며 다양한 함의를 제공하는 저서 '호모 컨스트럭투스(Homo Constructus)'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본서에서 사회학뿐 아니라 인문학 관점에서도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 영향을 미쳤다.

(1) 인문학에 대한 정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인간의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²⁾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두는 학문 분야로 정치·경제·역사·학예 등 인간과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²³⁾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학(Humanities)은 고대 로마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에 의해 처음 언급된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에서 유래되었으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연주(2016)는 인문학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 ‘인문학이란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도야하고 형성하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²⁴⁾ 한편, 딜타이(Wilhelm Dilthey)는 자연과학과 대비해 인문학을 인문과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인문학을 ‘인간과 사회, 역사를 이해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것과 대비되는 인문과학(Human Sciences)’이라고 기술했다.²⁵⁾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인문학의 정의에서 자연과학에 상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예, 언어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인문과학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인문학 정의들을 종합해 인문학의 개념을 새롭게 기술해 보면, 인문학의 대표 분야인 언어, 문학, 철학, 역사, 예술 등을 통해 인간과 삶의 본질, 가치, 존재 이유, 의미 등을 탐구하고,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성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이해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10.

23) 두산백과사전(<https://www.doopedia.co.kr>), 2025.10.

24) 이연주(2016), “인문학을 활용한 도덕과 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5) Wilhelm Dilthey(1989), “Introduction to the Human Scienc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표 3-1〉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구분	정의	출처
사전적 정의	· 인간의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고대 로마의 키케로(Cicero)에 의해 언급된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에서 유래,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 의미 · 정치·경제·역사·학예 등 인간과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임	두산백과사전 (doopedia.co.kr)
개별 연구자 정의	·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도야하고 형성하는 학문	이연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16
	· 인간과 사회, 역사를 이해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 (Human Sciences)	Wilhelm Dilthey, Introduction to the Human Sciences, 1989

(2) 인문학 관점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

그러면 인문학의 관점으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문학의 정의를 기초로 생각해 볼 때 인문학 관점이란 사물과 사회·자연 현상을 인간과 삶의 본질, 가치, 의미와 연결하여 해석, 성찰하고, 또한 인간 삶의 문화, 역사,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여 해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문학 관점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인간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인간과 삶의 본질, 가치, 존재 이유와 연계해 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등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탐구한다. 셋째는 사물이나 현상을 인간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림 3-1〉 인문학 관점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 의미

인간 중심 사고

✓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
성찰

근본적 가치·의미 탐구

✓ 사물과 현상을 인간과 삶의 **본질, 가치, 존재 이유**와
연계해 **근본적 질문** 제기

사회·문화 역사적 맥락 강조

✓ 사물이나 현상을 인간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

(3) 인문학 관점 적용한 주요 인물들과 사상

인문학 관점에서 건설산업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바라볼 때 어떤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우선 인문학 관점을 이미 건설산업에 적용을 시도한 주요 인물들과 사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승효상의 건설에 대한 인문학 관점

국내에서 건축과 건설산업에 인문학적 관점을 적용한 인물들로는 대표적으로 승효상, 정기용, 김수근이 있다. 모두 건축의 철학과 가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한 건축가들로서 이중 승효상은 2002년 1월 30일 중앙일보에 ‘건축은 인문학이다’라는 기고문을 게재했으며, 이를 통해 건설에 인문학적 관점을 가장 먼저 적용한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²⁶⁾

그는 건축을 단순히 ‘세우는’ 행위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담아 ‘짓

26) 승효상(2002.1.30.), “건축은 인문학이다”, 중앙일보 기고.

는' 행위라고 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마치 물과 불을 사용해 쌀을 변화시켜 밥을 짓듯이 또는 시인이 마음과 정신을 거친 단어들을 모아 시를 짓듯이 건축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건축은 단순히 공학이나 예술도 아니며, 인문학에 가깝다고 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건축은 모름지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건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직하는 일이다. 따라서 건축을 굳이 다른 학문의 분류로 설명하자면 공학이나 예술보다 인문학에 가깝다. 역사에 대한 인식과 떨어질 수 없고 다른 이들과의 사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왜 사느냐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건축은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는 가치가 있다. 건축을 만드는 일, 집을 짓는 일이 이 땅에 윤리를 세우는 일과 다름 아님을 지각하는 일이 우리의 지속되는 삶을 위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승효상의 기고문과 다른 글들을 기초로 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요약하면, 건축은 인간 삶의 방식과 관계를 조직하고 공동체 가치·윤리를 세우는 인문학적 행위이다. 그는 건축 행위를 통해 공동체 가치와 윤리를 세우는 인문학적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는 사회·윤리적 건축, 빈자를 배려하는 빈자의 미학이 담긴 건축,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매우 강조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승효상의 관점을 기초로 건설산업의 올바른 혁신 방향과 핵심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건설산업이 인간 삶의 방식을 올바르게 조직하고,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하고 있는가? 둘째, 건설산업이 공동체적 조화를 고려하고 있는가?

② 정기용의 건설에 대한 인문학 관점

정기용은 프랑스에 유학하여 건축을 배우는 동안 프랑스 68혁명을 이끈 신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아 건축에서 인간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건축은 예술·기술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영역’이라고 주장했으며, “건축이란 땅 위에 세우는 건물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공유해야 할 문화적 가치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²⁷⁾

특히 정기용은 ‘감응의 건축’을 강조했다는데, 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감응의 건축’은 사람과 건축물, 건축물과 땅, 사람과 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소통을 넘어 서로에게 교감하고 스며드는 것까지를 말한다. 그는 주택에 관해서도 ‘거주자와 세계를 이어주는 관계의 시작’으로, 사적·공적 공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대기하는 대합실처럼 집을 활용하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살 시간·공간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런 삶은 임시적·즉흥적이며 연속성이 없다”라고도 하였다.²⁸⁾

그는 건축의 공공성도 강조하며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대표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전북 무주 일대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 건축물 30여 개를 작업하는 ‘무주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감응의 건축, 흙건축,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한 프로젝트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기용의 관점을 기초로 건설산업의 올바른 혁신 방향과 핵심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산업이 수익, 효율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공동체, 문화, 역사를 고려하고 있는가? 둘째, 건설산업이 건축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27) 국립현대미술관(<https://www.mmca.go.kr/>), ‘그림 일기 :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28) 정기용(2008.10.15.), “감응의 건축”, 현실문화 출판.

③ 김수근의 건설에 대한 인문학 관점

김수근은 1971년에 ‘범태평양 건축상’을 수상하면서 자신의 건축관을 ‘궁극공간(Ultimate Space)’이라는 공간론으로 정리하였다. 궁극공간이란 건축이 제공하는 단순한 물리적 기능을 넘어 인간의 정신적 여유와 사색,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제1공간(Primary Space)은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인간이 자신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원시사회 때부터 오두막집, 나무 위의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건축공간을 의미한다. 제2의 공간(Secundary Space)은 생산을 위한 건축공간으로서 공장, 사무실, 창고 등과 같이 생산을 위한 획일적, 기능적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궁극공간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획일적, 합리적, 기능적 공간의 개념을 넘어 인간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사색과 창의성, 관계와 해프닝(Happening)이 가능하도록 여유가 보장된 공간이다. 이는 어머니의 뱃속처럼 편안하고 평온함을 주는 공간을 지향하며, 한국 전통 건축의 문방(文房)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축철학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1980년에 동경에서 열린 ‘세계건축가협회(UIA)’ 행사의 기조연설을 맡아 그의 사상적 측면을 드러내는 ‘네거티브즘(Negativism)’을 발표했다. 네거티브즘은 궁극공간의 인간 중심적 여유 공간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채움보다는 비움, 강한 형태보다는 여백과 사이 공간을 중시하는 건축철학이다. 이 역시 한국 전통 건축의 공간 미학과 도가 및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의 궁극공간과 네거티브즘의 건축철학에는 한국적 건축철학이 일관되게 담겨져 있으며, 그는 적극적 개발보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 기능적 건축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공간일지라도 인간의 여유, 사색, 창작, 관계 회복 등과 같은 인간성이 회복되는 공간에 집중하였다.²⁹⁾

29) 이성수, 김수근 건축철학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회지, 2008, vol.11, no.3.

이상에서 살펴본 김수근의 관점을 기초로 건설산업의 올바른 혁신 방향과 핵심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산업이 기능주의와 편의주의, 합리주의를 넘어 인간의 여유와 사색, 창작, 관계 회복 등과 같은 인간성을 유지, 발현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만 하는가? 둘째, 한국적 건축 정체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건축과 건설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④ 루이스 칸의 건설에 대한 인문학 관점

해외 인물들 중에서도 건축과 건설산업에 인간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회복 등 인문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를 이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을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현대 건축가이자 모더니즘 건축 최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루이스 칸은 현대 건축을 지배하던 모더니즘 사조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전통 건축에서 모티브를 얻어 창의적인 현대 건축으로 승화시켰다. 즉 모더니즘 건축사조에서 잊혀져가던 미적이며 감성적인 가치를 건축에 다시 불어넣었다. 그는 모더니즘 건축사조에 전통 건축을 결합시킨 몇 안 되는 건축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특히 빛을 잘 이용해서 극적인 장면을 잘 나타내는 건축물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김벨미술관(Kimbell Art Museum)이 있다.

그는 건축공간의 개념을 ‘봉사 받는 공간(Served Space)’과 ‘봉사하는 공간(Servant Space)’으로 구분했는데, 봉사 받는 공간은 거실, 연구실, 작업장처럼 사용자가 주된 활동을 수행하는 중심적인 공간이며, 봉사하는 공간은 배관, 설비, 계단, 구조체 등 주 공간을 위해 기능을 제공하는 곳으로, 보통 벽체 내부나 가장자리에 배치된다. 그런데, 루이스 칸은 기존의 모더니즘 건축사조에서 단순히 공간을 기능적으로 나누고 최대한 합리적, 효율적으로 건

축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설비 요소를 미학적, 구조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질서와 함께 미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시도에 탁월함을 보였다. 김벨미술관의 경우 빛을 잘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 상부에 빛을 받아들이는 틈을 낸 볼트 구조를 통해 건축의 구조, 기능, 공간, 설비, 그리고 미적 부분을 함께 고려해 해결하고 결합한 건축물로서 아직 이 건물만큼 모든 것이 통합된 건물은 나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³⁰⁾

이상에서 살펴본 루이스 칸의 관점을 기초로 건설산업의 올바른 혁신 방향과 핵심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의 건설산업과 건축 행위에 어떻게 전통문화와 미적, 감성적 가치를 조화시킬 것인가? 둘째,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을 중심으로 한 봉사 받는 공간과 봉사하는 공간을 최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⑤ 키쇼 쿠로가와(黑川紀章)의 건설에 대한 인문학 관점

키쇼 쿠로가와(黑川紀章)는 일본의 저명한 건축가로서 현대 건축에 일본 철학으로부터 착안한 건축사상을 접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향후 현대 건축은 획일화된 근대건축의 국제주의 양식으로부터 다양한 이종문화(異種文化)가 결합된 양식으로 옮겨가며, 전 세계와 지역 간의 공생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 건축의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에 대응해 인간 삶의 원리와 일본 문화라는 두 개념을 그의 건축철학에 최대한 접목시키고자 했다.

그의 건축철학은 진화를 거듭해 최종적으로는 메타볼리즘(Metabolism, 新陳代謝), 메타몰포시스(Metamorphosis, 變形) 그리고 심바이오시스(Symbiosis, 共生)가 그의 건축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메타볼리즘은 건물을 영구적인 코어와 교체 가능한 모듈형 유닛으로 구분하여, 생명체가 세포를 교체

30) 건축사사무소 아라가야, 세계의 건축가 '루이스 칸', 2023.4.

하듯 건축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교체되는 개념이며, 메타몰포시스는 건축물이 환경, 시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형태와 기능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고정된 형식을 탈피한 능동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바이오시스는 자연과 인간, 기술과 전통, 과거와 현재와 같은 서로 다른 요소가 대립하지 않고 상호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며, 쿠로가와 후기 건축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³¹⁾

이상에서 살펴본 키쇼 쿠로가와와의 관점을 기초로 건설산업의 올바른 혁신 방향과 핵심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산업과 건축에 기능성과 효율성, 획일성을 넘어 어떻게 지역별 전통문화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할 것인가? 둘째, 전통과 미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즉 미래 지향적 건축과 전통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⑥ 렌조 피아노의 건설에 대한 인문학 관점

렌조 피아노(Renzo Piano)는 이탈리아 건축가로서 건축에 하이테크를 결합한 대담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사조를 지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첨단 기술만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 창조, 기술과 예술의 균형, 건축과 도시환경의 조화 등을 강조했다. 즉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기술과 예술, 건축과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공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건축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공간’, 즉 우노 스파치오 페라 겐테(uno spazio per la gente)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작업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 설계된 이탈리아 바리의 산 니콜라 스포츠 경기장의

31) 이일형(2015), “키쇼 쿠로가와(黒川紀章)의 건축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6, No.1, pp. 827-836.

경우 건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마치 꽃잎이 펼쳐지는 것처럼 경기장을 설계함으로써 기술과 예술,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각 관중석은 8미터 간격의 빈 공간으로 배치되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그의 건축 철학을 반영하였다.

1994년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1920년대 자동차 제조 공장을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에서도 건물 외관은 여전히 역사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내부는 공간을 활용할 사람을 위해 완전히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전통과 미래에 대한 균형과 조화, 사람을 위한 공간 창조라는 그의 철학을 반영하였다. 옥상에 투명한 버블 회의실의 경우 직원들을 위해 지어진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서 사람을 위한 공간 창조의 철학이 반영됨과 동시에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과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였다.³²⁾

이상에서 살펴본 렌조 피아노의 관점을 기초로 건설산업의 올바른 혁신 방향과 핵심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산업과 건축이 첨단 하이테크 기술과 전통, 예술, 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둘째, 기존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어떻게 인간을 위한 공간을 창조할 것인가?

(4) 인문학 관점의 핵심가치 시사점

① 건설산업 혁신 및 핵심가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주요 인물들의 핵심 사상과 주장, 그리고 인문학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혁신 방향과 핵심가치와 관련해 던지는 질문과 이슈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32) Craven, J.(2019.7), "Biography of Renzo Piano, Italian Architect", Thoughtco (www.thoughtco.com).

〈표 3-2〉 인문학 관점을 건설산업에 적용한 주요 인물들과 사상

인물	핵심 사상	건설산업 혁신 및 핵심가치 관련 질문·이슈
승효상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행위를 인간 삶의 방식과 관계를 조직하고 공동체 가치·윤리를 세우는 인문학적 행위로 이해 · 건축을 통한 사회적 책임, 공동체 조화 중요(빈자의 미학, 공공성, 사회윤리적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이 인간 삶의 방식을 올바르게 조직하고,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하고 있는가? · 건설산업이 공동체적 조화를 고려하고 있는가?
정기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사람·역사와 감응하며, 공공적 실천을 지향하는 건축(감응, 공공성, 공동체, 사회 관계, 실천적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이 수익과 효율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공동체, 문화, 역사를 고려하고 있는가? · 건축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김수근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통미와 공간감각, 인간성 유지와 표현 위한 궁극적 공간(Ultimate Space)의 창조(한국성, 전통성, 인간중심, 비움의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이 기능주의를 넘어 인간의 여유와 창작, 관계 회복 등과 같은 인간성을 유지, 발현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만 하는가? · 한국적 건축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건축과 건설산업에 접목시킬 것인가?
루이스 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니즘과 전통주의의 조화, 기능주의에 미적·감성적 가치 부여, 인간 중심으로 한 봉사하는 공간과 봉사 받는 공간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는 건설 행위에 어떻게 전통 문화와 미적·감성적 가치를 조화시킬 것인가? · 인간을 중심으로 한 봉사 받는 공간과 봉사하는 공간을 어떻게 최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키쇼 쿠로가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 획일성 지양, 건축에 사회적 다양성·다양성, 이종문화간 공생, 자연 및 전통과의 공생(메타볼리즘, 공생, 순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과 효율성, 획일성을 넘어 어떻게 지역별 전통 문화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할 것인가? · 전통과 미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미래 지향적 건축과 전통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렌조 피아노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위한 공간 창조, 기술·예술적 균형, 건축과 도시환경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하이테크 기술과 전통, 예술, 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기존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어떻게 인간을 위한 공간을 창조할 것인가?

주요 인물들의 사상과 주장들을 기초로 볼 때 인문학 관점으로 건설과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과 삶, 사회, 문화, 역사, 자연환경 등의 관점에서 건설과 건설산업의 본질,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향후 건설산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인간과 삶, 사회, 문화·역사, 자연환경 등의 관점에서 건설과 건설산업의 본질과 가치, 의미를 성찰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혁신 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건설산업 혁신의 산업적 관점과 인문학적 관점 비교

그동안 반복되어 온 건설산업의 혁신 방안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적 관점에서 혁신의 주제와 목적, 주요 가치,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인문학적 관점과는 분명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서는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 성공의 린치핀을 찾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학 관점에 이어 이상에서 살펴본 인문학 관점을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적용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건설산업의 혁신에 대한 기존의 산업적 관점과 인문학적 관점을 비교,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 건설산업 혁신에 대한 산업적 관점과 인문학적 관점 비교

구분	산업적 관점	인문학적 관점
핵심 주제	· 어떻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가?	· 왜, 무엇을,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
주요 가치	· 생산성, 속도, 비용 절감, 기술혁신	· 인간 존엄, 공동체, 문화적·역사적 의미, 지속가능성
성과 기준	·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글로벌 경쟁력 순위 및 시장 점유율 확대	· 인간 삶의 질 향상,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 사회·환경·문화적 지속가능성
혁신 초점	· 자본·노동·기술 투입의 최적화	· 건설이 인간다운 삶과 사회·환경·역사에 남기는 흔적과 가치의 향상
노동 인식	· 노동력 = 비용, 효율적 관리 대상	· 노동자 = 주체적 인간, 안전·존엄 보장 필요
공간 이해	· 기능적·경제적 단위로서 도로, 건물, 인프라	· 삶을 담는 장(場),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와 문화가 형성되는 공간
세부 혁신 방향	· 신소재, 디지털 기술, 자동화, 스마트 건설	· 균형적 기술 활용, 포용적 도시, 생태적 균형, 미래 세대 고려, 문화·역사적 가치 향상
한계	· 인간성·공동체성의 소외, 환경 파괴 가능성	· 속도·효율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건설산업 혁신의 핵심 주제와 목적은 ‘어떻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가?’였으며, 주요 가치 요소는 생산성, 속도, 비용 절감, 그리고 기술혁신이었다. 대표적 성과 기준은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글로벌 경쟁력 순위 및 시장 점유율 확대이었다.

반면, 인문학 관점을 적용하면, 건설산업 혁신의 핵심 주제와 목적은 ‘왜, 무엇을,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로 바뀌고, 주요 가치 요소는 인간 존엄, 공동체, 문화적·역사적 의미, 지속가능성 등으로 확장이 필요하게 된다. 성과 기준 역시 인간 삶의 질 향상,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 환경·문화적 지속가능성 등으로 기존의 생산성, 속도 등을 넘어 폭 넓어지게 된다.

건설산업 혁신의 초점도 자본·노동·기술 투입의 최적화 외에 건설이 인간 삶과 사회에 남기는 흔적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외에도 노동에 대한 인식, 공간에 대한 이해, 세부적 혁신 방향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의 산업적 관점이 다루지 못했던 인문학 관점의 시사점들에 대한 고려가 추가로 요청된다.

③ 인문학 관점 적용 통한 핵심가치 도출

결국 건설산업 혁신을 인문학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기술·경제·산업적 효율을 논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삶, 사회, 문화, 역사, 자연환경 등의 관점에서 건설과 건설산업의 본질,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고, 이와 연계해 건설산업 혁신의 해답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향후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시도 시 기존의 산업적 관점의 가치인 생산성, 기술혁신, 산업구조의 효율성 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핵심은 그동안의 산업적 관점의 건설산업 혁신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간 삶의 질과 존엄, 공동체, 문화와 역사적 가치,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도 향후 건설산업 혁신 성공, 즉

재탄생을 위해 반드시 고려가 필요한 가치 요소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인문학 관점을 적용 시 건설산업의 핵심가치(Core Value)가 인간 존엄, 공동체, 문화와 역사, 환경의 4개 분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향후 건설산업 혁신 성공을 위한 핵심가치가 기존의 생산성, 기술혁신과 더불어 인간 존엄을 위한 인간 삶의 질과 행복, 인권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와 관련해 상생과 공영, 공동체 회복, 공정과 윤리를 핵심가치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역사, 환경과 관련해서는 문화와 역사성, 환경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인문학적 관점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새롭게 7개의 핵심가치를 혁신 성공을 위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개 핵심가치별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 이슈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 인문학 관점 적용 통한 건설산업 핵심가치의 확장

핵심가치	핵심 이슈 질문
인간 존엄	인간 행복 삶의 질 건설산업이 단순히 기능 및 효율을 넘어, 인간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 인간의 감성·문화적 경험 차원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인권·안전 건설산업이 근로자 안전, 노동착취 근절, 사회약자 권리 보호, 지역 주민 안전과 삶의 질 등과 같은 인간 존엄·행복을 최우선시 하는가?
공동체	상생·공영 건설 사업에서 '개별 기업/집단 이익 극대화'보다 건설의 본질적 가치·의미를 회복하고, 모든 참여주체의 역할·책임 이행을 통한 참여주체와 이해관계자의 '공생'과 '사회 공동 이익'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공동체 회복 건설산업이 경제·기술을 넘어, 인간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 강화, 공동체 회복, 사회적 불평등 완화, 사회적 약자의 공간, 소셜 믹스에 어떤 긍정 영향을 미치는가?
	공정·윤리 '개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참여주체 구성원들이 법준수를 넘어 공정·윤리적 업무 관행을 이행하게 할 것인가?
문화/ 역사	문화·역사적 가치 도시·주거·인프라가 단순히 기능·효율을 넘어, 예술·문화·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예술·문화적 경험과 역사적 상징성·가치를 제공하는가?
환경	지속가능성 건설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상호 조화·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 혁신의 방향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건설의 방향은 무엇인가?

건설산업의 혁신 성공, 재탄생을 위해 인문학 관점의 적용을 통해 도출한 핵심가치들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이슈되고 있는 ESG경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요소들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다. 향후 건설산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본서는 가치 전환이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설하에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핵심가치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 탐색의 과정에 ESG경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치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문학 관점의 적용을 통해 발견한 핵심가치들이 ESG경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 ESG경영의 핵심가치 시사점

① ESG경영의 핵심적 개념 요소

ESG경영의 핵심가치 시사점은 주요 기관들의 ESG경영 정의에 포함된 핵심적 개념 요소들을 기초로 일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ESG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들을 기초로 ESG경영에 포함된 핵심적 개념 요소들을 추출하면 환경·사회·지배구조 배려, 지속가능성 추구, 비재무적 성과 및 가치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주요 기관들의 ESG경영 정의에 포함된 핵심 개념 요소들(Key Words)은 다음의 그림과 같으며, 핵심 개념 요소를 유사성, 포괄성 등을 감안해 분류해 보면,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지속가능성, 비재무적 성과 및 가치 추구 등이 ESG경영의 가장 핵심적 개념 요소로 판단된다.

33) 본 절의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4년 12월 발간한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을 위한 ESG경영의 가치 탐색'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표 3-4〉 주요 기관들의 ESG경영 정의에 포함된 핵심적 개념 요소

구분	정의	핵심적 개념 요소
UN PRI	factors into investment decisions, to better manage risk and generate sustainable, long-term returns	투자자 의사결정, 지속가능성 창출, 경영 리스크, 중장기 수익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institute	investors are considering in the context of corporate behavior. Often these ESG issues have been considered non-financial or non-quantifiable in nature and have a medium-to long-term time frame in their effect on a Company	투자자 고려사항, 기업 행동, 중장기 기간, 비재무
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	broad se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considerations that may impact a company's ability to execute its business strategy and create value	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 전략, 가치 창출, 기업 역량 영향력
Nasdaq	broad se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considerations that may impact a company's ability to execute its business strategy and create value over the long term	기업 역량 영향력, 사업 전략, 가치 창출, 장기적
London Stock Exchange Group	'sustainability', 'corporate responsibility' 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refer to strategies or programmes related to ESG activities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혹은 활동
Toronto Stock Exchange	three categories of factors that may affect an organization's performance, and therefore, its value	성과 요소, 가치
RobecoSAM	factors to evaluate companies and countries on how far advanced they are with sustainability	평가 요소, 지속가능성

자료 : 한국거래소 ESG 포털(<https://esg.krx.co.kr>).

②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적 개념 요소

ESG경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은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이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을 발표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환경분야가 지속가능경영의 타 분야에 비해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이 ESG경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를 감안해 ESG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정의들을 기초로 핵심적 개념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정의들을 기초로 핵심적 개념 요소들을 추출하면, 경제·환경·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 주주 외 이해관계자 배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가치 요소로 도출할 수 있다.

〈표 3-5〉 지속가능경영의 정의에 포함된 핵심적 개념 요소

구분	정의	핵심적 개념 요소
WBCSD	기업이 경제적 성장, 생태적 균형, 사회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의 주주 외에 근로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경제·환경·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 주주 외 이해관계자 배려 지속가능한 발전
ISO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해 자발적 책임을 지는 것	
KBCSD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 가치를 포함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경영 활동	
산업정책 연구원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경영으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며 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	

③ 기업단위 ESG경영의 성과에 기초한 핵심적 개념 요소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업 단위의 ESG경영 추진이 단순히 비용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기업 단위의 ESG경영 추진이 어떻게 기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ESG경영의 기업 성과 창출 경로를 분석했다. 크게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경로와 재무적 성과 향상 경로로 구분했는데, 동 성과 창출 경로에 활용된 핵심적 개념 요소

를 통해서도 ESG경영의 건설산업 핵심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업단위 ESG경영 성과 창출 경로에서 ESG경영의 핵심적 개념 요소를 추출하면, 이해관계자와 상생(거래·협업 성과 향상),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 형성(거래비용 감소), 장기적 생존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핵심적 요소로 판단된다.

〈표 3-6〉 ESG경영의 성과 창출 경로에 기초한 ESG경영의 핵심적 개념 요소

구분	주요 내용	핵심적 개념 요소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가능성 위협요인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경영 이행에 따른 기업 평판·이미지, 신뢰도 제고로 고객 불매운동, 직원 단체활동, 협력사 협업 거부,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비판 등의 강도와 주기 완화 · ESG경영 관련 시장 전환 및 좌초자산 리스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화석연료 기반 플랜트의 신재생에너지플랜트 전환 등에 선제적 대응 - 좌초자산(Stranded Asset) 리스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와 신뢰 형성에 의한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감소 · 이해관계자와 신뢰 형성에 의한 거래비용 감소 및 거래·협업 성과 향상 · 이해관계자와 상생 및 시너지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가치 요소 : 신뢰, 상생, 지속가능성 등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비용 감소(Cost Re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자원 사용 비용, ESG 관련 규제위반 비용 감소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비용 감소 : 협상/계약비용, 감시/통제비용, 자금조달비용 등의 감소 · 기업의 성과 향상(Output Incr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경영 관련 신시장 선점 : 운영탄소 및 내재탄소 감축 관련 시장, 에너지전환/순환경제 관련 시장 선점 - 발주자 신뢰도 향상 통한 수주 가능성 증대, 직원 충성도 향상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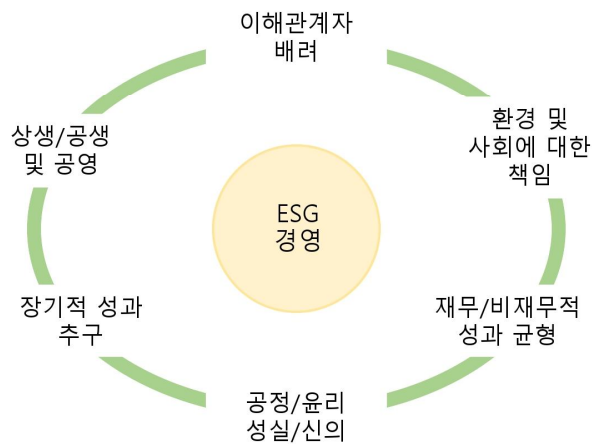
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ESG경영의 가치 탐색(2024.12)' 내용을 기초로 정리함.

④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기관들의 ESG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와 기업단위 ESG경영의 성과를 기초로 추출한 ESG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가치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세부적으로 주요 기관들의

ESG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추출한 핵심적 개념 요소는 환경·사회·지배 구조 배려, 지속가능성 추구, 비재무적 성과 및 가치 추구이며, 주요 기관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추출한 핵심적 개념 요소는 경제·환경·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 주주 외 이해관계자 배려,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이다. 그리고 기업단위 ESG경영의 성과를 기초로 추출한 ESG경영의 핵심적 개념 요소는 이해관계자와 상생(이해관계자와 거래비용 감소, 거래·협업 성과 향상), 장기적 생존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향후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핵심가치 도출 시 사회학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도출한 핵심가치 요소들과 함께 이상에서 살펴본 ESG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적 개념 요소들도 일부 참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ESG경영의 핵심가치(Core Value)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ESG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적 가치 요소들을 기초로 기존의 전통적 경영 패러다임과 ESG경영의 패러다임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기존의 전통적 경영 패러다임은 개인 및 소속 집단(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단기적, 재무적 성과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경쟁사 및 협력업체와 약탈적 경쟁(Zero Sum) 관계를 지속함에 따라 장기적 생존

가능성과 재무성과가 낮아지고 상호 공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ESG 경영 패러다임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장기적, 재무·비재무적 균형 잡힌 성과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경쟁사 및 협력업체와 상생(Positive Sum) 관계를 지속함에 따라 장기적 생존 가능성과 재무성과가 높아지고 상호 공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림 3-4〉 기존 경영 패러다임과 ESG경영 패러다임의 가치(Value) 비교

	기존 경영 패러다임		ESG경영 패러다임
대상	개인 및 소속 집단	↔	환경/사회 및 이해관계자 포함
목표	자기 이익 극대화 (개인 및 소속 집단 이익 극대화)	↔	공동 이익 극대화 (이해관계자 포함 공동 이익극대화)
성과	재무적 성과 초점	↔	재무·비재무적 성과 균형
기간	단기 성과 추구 (현 세대 이익 초점)	↔	장기 성과 추구 (미래세대 이익 고려)
관계	약탈적 경쟁(zero sum) 및 공멸(negative sum) 관계	↔	공생·상생 및 공영(positive sum) 관계
방식	최소한의 법적 의무 이행	↔	준법 및 정도/윤리 경영



04

**가치 전환 방향 및
과제 모색**

1 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8대 핵심가치

본서에서는 향후 건설산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가치 전환이 린치핀(Linchpin)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해 필요한 핵심가치에 대해 탐색했다.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한 이유는 지난 20여 년 동안 반복된 건설산업의 혁신 전략 및 방안에서 다루었던 과제들에 집중하는 대신, 기존 전략 및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린치핀 요소를 발견하고자 함이었다. 우선 사회학 측면에서는 일반적 산업 혁신과 국가·사회 혁신의 성공요인, 사회 발전단계 관련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건설산업 재탄생에 필요한 핵심가치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인문학 측면에서는 건설산업에 인문학적 관점을 적용하고자 했던 주요 인물들의 사상과 관련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고, 이를 통해 건설산업 재탄생에 필요한 핵심가치 요소들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 관점의 적용을 통해 발견한 핵심가치들이 ESG경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중첩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ESG경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치 요소들에 대해서도 깊이 탐색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의 혁신 성공을 위해 사회학, 인문학, ESG경영의 관점에서 탐색한 핵심가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도출된 핵심가치 요소들은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사회적 자본, 창조적 갈등관리이며,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간 삶의 질과 행복, 인권·안전, 상생·공영, 공동체 회복, 공정·윤리, 예술·문화·역사,

환경 지속가능성과 같은 핵심가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ESG경영의 주요 가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상생, 공정·윤리, 신의성실, 환경·사회에 대한 책임, 장기적 성과 추구, 재무·비재무적 성과 균형 등의 핵심가치를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핵심가치 도출 과정 및 결과

구분	핵심가치 요소 도출	최종 핵심가치 분류
사회학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구성원 혁신 공감대 형성, 관행 탈피 및 혁신성장문화 구축 · 소통 및 상호작용, 창조적 갈등관리 및 합의 문화 · 사회적 자본 : 신뢰·신의성실, 상호호혜, 내재된 윤리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존중 및 보호,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생명 중시, 생명 중심주의, 안전 최우선주의 · 웰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상품의 인간 행복·삶의 질 향상 기여, 문화·예술·역사적 가치, 공동체·사회관계 회복 · 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배려, 상생·공영, 신뢰·신의성실 ·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재된 윤리규범의 자율적 준수 ·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수용성·개방성, 기득권층 저항 극복 - 기존 질서·관행 탈피 및 창조적 파괴 시도 - 창조적 갈등관리(적극적 소통 및 합의) ·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성 ·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회복,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배려, 사회공헌
인문학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존엄 : 인간 행복 및 삶의 질, 인권, 안전 · 공동체 : 상생 및 공영, 공동체 회복, 공정 및 윤리 · 문화 역사 : 예술·문화·역사적 가치 · 환경 : 환경 보전, 지속가능성 	
ESG경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 · 상생, 이해관계자 배려 · 공정, 윤리, 신의성실 · 장기적 성과 추구, 재무·비재무적 성과 균형 	

이상에서 도출된 핵심가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최종 정리한 결과, 8대 핵심가치로 요약되었다. 인간의 존엄 및 삶의 질 관련 3대 가치(인권·안전·웰니스), 건설산업을 신뢰와 상생 기반 위에 다시 세우는 사회적 자본 관련 2대 가치(상생·윤리), 산업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가치인 혁신성장,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관련 2대 가치(환경·공동체)가 향후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위해 필요한 8대 핵심가치로 정리되었다.

8대 핵심가치를 구분해보면, 인권, 안전, 웰니스 가치는 가장 기본적 가치로서 건설산업 모든 참여주체들의 행동과 건설상품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상생과 윤리, 혁신성장의 가치는 건설산업 내부의 관계 및 성장을 위한 가치로서 건설산업 참여주체들 간의 거래 및 협력관계에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건설산업 내부에 혁신성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공동체 가치는 건설산업이 산업 외부의 사회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가치로서 산업 외부와의 관계와 관련된 핵심가치이다.

〈그림 4-1〉 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8대 핵심가치(Core Value)



(1) 개요

① 가치 전환과 건설산업 재탄생

건설산업의 가치 전환이란 제1장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 내 모든 구성원이 가치 있게 여기는 핵심가치(Core Value)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건설산업에서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던 생산성, 속도, 비용 절감 등의 가치 요소 외에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가치 요소들을 핵심가치 요소로 인식하고, 산업 내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 사회적 자본과 혁신성장 문화 구축, 사회·환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한 8대 핵심가치를 도출하였다. 이 핵심가치 요소들을 건설산업 내 대부분의 구성원이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공유하며, 이 가치 요소들이 산업 내 비공식 규범이자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가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 구성원의 가치 전환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에 산업 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와 관련된 과제들이 거의 부재한 반면, 앞서 살펴본 다학제적 관점의 건설산업 혁신에 대한 시사점에서 공통적으로 건설산업 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와 관련된 변화가 핵심 성공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가치 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핵심가치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8대 핵심가치로 최종 요약되었으며, 이 핵심가치의 산업 내 확산 및 공유를 통해 건설산업의 가치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가치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의 혁신 성공, 즉 재탄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다양한 혁신 방안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들은 8대 핵심

가치의 산업 내 확산과 공유, 즉 가치 전환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건설산업 재탄생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핵심가치 적용 통해 해결 가능한 건설산업의 문제점

향후 8대 핵심가치의 적용을 통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건설산업의 태생적 특성에 기인해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반복된 건설산업의 혁신 방안들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점들이다. 건설산업이 8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가치 전환에 성공할 경우 그동안 해결이 쉽지 않았던 이 문제점들의 해결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건설산업 재탄생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치 전환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린치핀(Linchpin)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본서는 제시하고 있다.

8대 핵심가치의 적용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본서에서는 향후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위해 이 구조적 문제점들에 8대 핵심가치를 적용함으로써 이 문제점들의 해결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8대 핵심가치의 적용을 통해 문제점별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개선방향은 이후 문제점 개선을 위한 문제점별 구체적인 실행과제 도출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목차에서 세부적으로 8대 핵심가치 적용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점들의 해결 가능성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2〉 8대 핵심가치 적용 통해 해결 모색이 가능한 건설산업의 문제점

건설산업 특성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적용 가능한 8대 핵심가치
❖ 현장 근로자 중 높은 비정규직 및 이주민 비중	❖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인권 1
❖ 옥외 생산 및 건설현장의 지속적 변경	❖ 안전사고 취약 산업 : 안전사고 발생률 1위 업종	안전 2
❖ 성장기 효율적 상품 공급에 초점 둔 관성 잔존	❖ 건설상품의 인간 행복·삶의 질 기여 미흡 ✓ 기본 기능 외 예술·문화적 경험, 공동체 회복 기능 미흡	웰니스 3
❖ 다양한 주체간 협업 네트워크 및 원하도급 산업	❖ 가치사슬 내 협력 주체간 대립 및 갈등 구조 ✓ 수직·수평적 영역의 지나친 세분화 및 장벽 존재	상생 4
❖ 수주 산업 및 인허가 의존 산업	❖ 부패발생에 취약한 산업	윤리 5
❖ 기존 산업구조 및 생산체계의 고착화 ✓ 생산체계, 업역구조, 법체계 등 고착화	❖ 창조적 파괴 통한 혁신성장 쉽지 않은 산업 ✓ 기존 체계 유지 범위 내 소규모 혁신 시도	혁신성장 6
❖ 태생적 환경파괴적 특성 지닌 산업	❖ 자연환경 파괴 ✓ 자연환경훼손·파괴, 오염물질(먼지, 폐기물 등) 배출	환경 7
❖ 건설상품은 소비재 보다 생산재·자본재 특성	❖ 소비재 산업에 비해 사회공헌활동 상대적 부족	공동체 8

(2) 인권침해 취약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① 특성 및 문제점

건설산업은 건설 현장의 안전 보장, 강제 노동 금지, 고용상의 비차별,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내 인권 보호,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인권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특히 건설산업은 현장 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여성 노동자 등 인권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인권존중 및 보호가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이주민 노동자 등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 낮은 임금, 불공정한 노동 조건에 노출되어 인권침해의 위험이 높다.

또한, 건설산업은 옥외현장이 대부분이고 잦은 현장의 이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같은 안전 관련 인권보호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 대형 건설기업을 비롯한 일부 건설기업들은 최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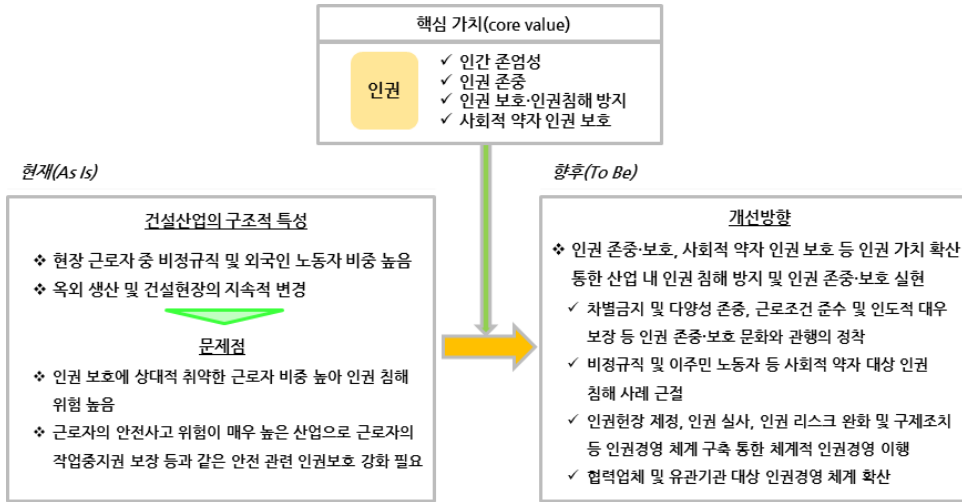
설산업 내 참여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② 개선방향

건설산업의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은 8대 핵심가치 가운데 인권 가치의 산업 내 공유와 확산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인권과 관련된 세부적 가치 요소인 인권 존중 및 보호,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치가 산업 전반의 문화로 정착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 인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산업 내 인권 존중·보호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내 건설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주체가 인권 관련 가치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업 전반의 가치 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관련 핵심가치 적용을 통한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기본적인 개선 방향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 존중·보호,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등 인권 가치의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존중·보호를 실현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과 다양성 존중, 근로조건 준수 및 인도적 대우 보장 등 인권 존중·보호 관행을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및 이주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 가치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인권현장 제정, 인권 실사, 인권 리스크 완화 및 구제조치 등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유관기관으로까지 인권경영 체계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4-3〉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인권침해 취약 문제 개선방향



(3) 옥외 생산 및 생산현장 변경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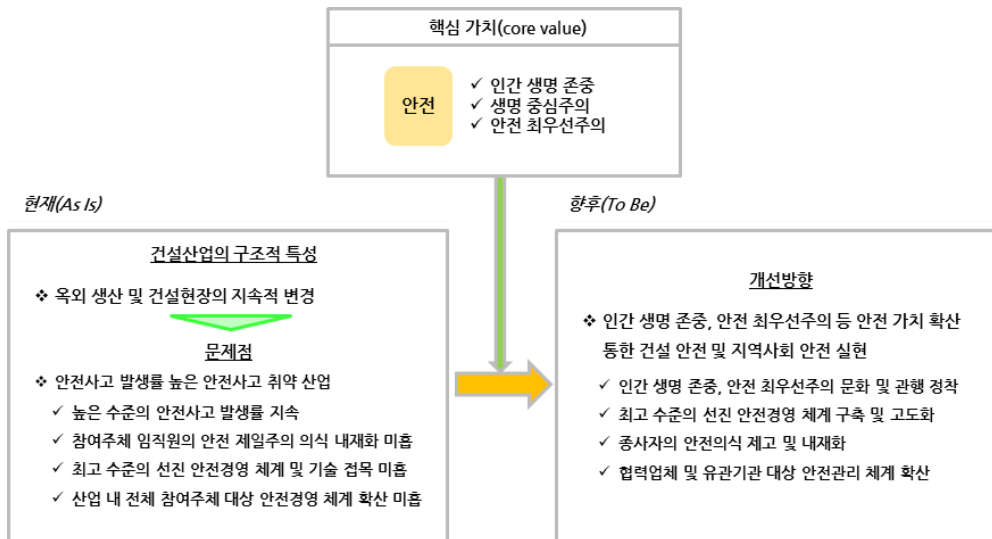
① 특성 및 문제점

건설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제조업과 달리 주로 옥외생산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 현장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생산 과정상에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 문제의 통제와 해결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또한 건설산업은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임시로 설치된 가설 재에 의존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건설산업의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속 개정되면서 원도급업자인 종합건설회사의 책임 또한 강화되어온 실정이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건설산업 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② 개선방향

건설산업의 옥외생산 및 지속적 현장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취약 문제점의 경우 8대 핵심가치 중 안전 가치의 산업 내 공유·확산 및 정착, 즉 가치 대전환을 통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간 생명 중시와 안전 최우선주의와 같은 안전 관련 핵심가치가 산업 전반의 문화로 정착될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안전 최우선주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가치사슬 내 건설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주체가 이러한 안전 관련 핵심가치 요소들을 함께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즉, 산업 전반의 가치 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 관련 핵심가치 적용을 통한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취약 문제의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4〉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취약 문제 개선방향



(4)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 치중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① 특성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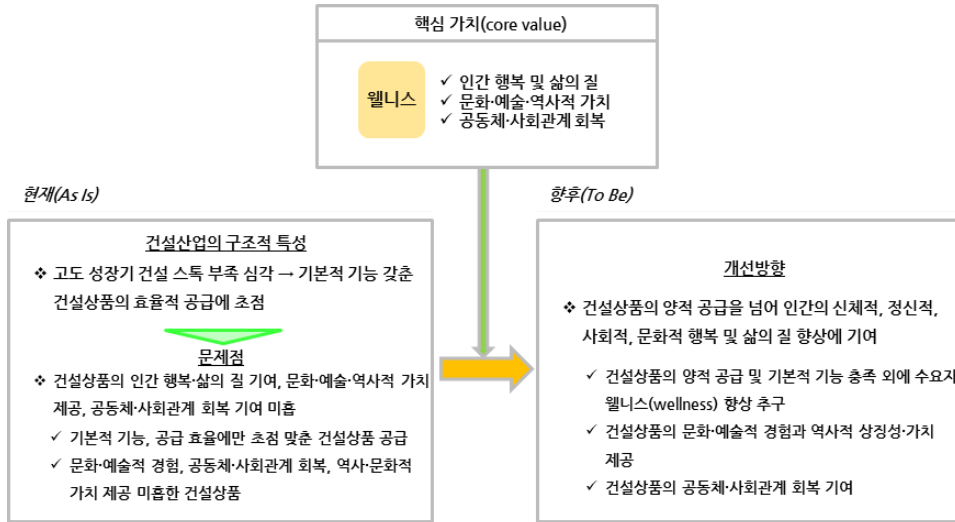
건설산업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생산시설, 주거 생활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에 치중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과 주거 생활공간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국가 재건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공급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기본적 기능을 갖춘 건설상품을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은 전후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과 기능 및 효율성에 치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요자인 인간의 행복 및 삶의 질에 대한 섬세한 기여는 다소 미흡했다. 기존의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동일한 국가 소득수준에서 주거용 건축투자보다는 사회기반시설과 공장시설 같은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투자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³⁴⁾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았고, 아파트 중심의 효율적 주택공급을 통해 기본적 거주 욕구를 매우 효율적으로 충족해 왔다. 그 결과, OECD 선진국에 비해 천인당 주택 수나 주거 면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 격차는 아직까지 여전하다. 결국 건설산업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건설상품의 효율적인 공급과 양적 공급에 치중한 관성이 아직 남아있고, 건설상품의 기본적 기능 충족 외의 인간 삶의 질 개선, 예술·문화·역사적 가치 제공이나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한 기여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4) 이홍일, 박철한(2014.7),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② 개선방향

과거 고도 성장기 건설상품의 효율적인 양적 공급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수요자인 인간의 행복 및 삶의 질에 대한 기여가 다소 미흡했던 문제점은 인간 삶의 질, 예술·문화·역사적 가치, 공동체 회복 등의 가치, 곧 전인적인 행복·건강과 관련된 웰빙 내지 웰니스에 가치를 부여할 경우 점차 개선될 것이다. 웰니스(Wellness)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향하는 전인적 건강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가치사슬 내 건설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주체가 함께 이 가치 요소들을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할 때, 즉 가치 대전환이 일어날 경우 동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웰니스 관련 핵심가치 적용을 통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기본적 개선방향은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을 넘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행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 및 기본적 기능 충족 외에 수요자 웰니스(Wellness) 향상 추구, 건설상품의 문화·예술적 경험과 역사적 상징성·가치 제공, 건설상품의 공동체·사회관계 회복 기여 등이 필요하다.

〈그림 4-5〉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 차중 문제 개선방향



(5) 종합적 협업 네트워크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① 특성

건설산업은 발주자, 원하도급 기업을 비롯한 가치사슬 내 다양한 생산주체들 간의 종합적 협업이 매우 중요한 협업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건설산업은 종합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생산 과정에서 설계자, 엔지니어링회사,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자재제조사, 장비보유자 등 다양한 생산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산업 내 참여하는 다양한 생산주체들 간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산업단위의 성과 제고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가치사슬 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도급자 위치에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협력업체의 보유 및 협업이 필수적이다.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간 원활한 협업을 비롯해 발주자와 원도급업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

건설업체와 자재업체 및 기계장비업체 간의 원활한 협업 등도 중요하다. 건설 생산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생산주체 간 상생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② 문제점

종합적 협업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지닌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참여주체들 간 원활하고 성공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한 반면, 참여주체들 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상호 대립과 갈등 구조가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단가 인하·초저가 계약 등 약탈적 거래, 단기 일회성 거래, 협력업체 기술·자원 탈취 등의 세부적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전통적 원하도급 구조로 인해 생산주체 간 상생협력보다는 납품단가를 중심으로 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기 쉽다. 가격 중심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모든 생산주체의 중장기적 경쟁력과 성과 향상이 저해되기 쉬운 취약점이 있다.

또한, 국내 건설산업은 산업의 수명주기(Life Cycle) 상 성장 국면을 지나 시장 성장이 제한적이고 가격경쟁과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수 있는 성숙국면에 위치하고 있어 참여주체들 간 대립과 갈등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환경에 처해 있다. 산업의 수명주기(Life Cycle)상 성숙국면은 시장규모의 성장이 지속된 성장 국면을 지나 성장이 정체된 국면으로 시장 규모의 정체, 높은 경쟁 강도, 치열한 가격경쟁, 수익성 하락 등의 특징을 지닌다. 한 산업이 산업수명 주기상 성숙기에 속할 경우 시장규모 정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생산주체 간 공정계약 및 경쟁, 상생협력보다는 약탈적 제로섬(Zero Sum) 경쟁 구도와 갑을관계를 이용한 착취구조가 형성되기 쉽다. 시장 규모의 정체 기간, 수익성 하락 추이, 기업 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건설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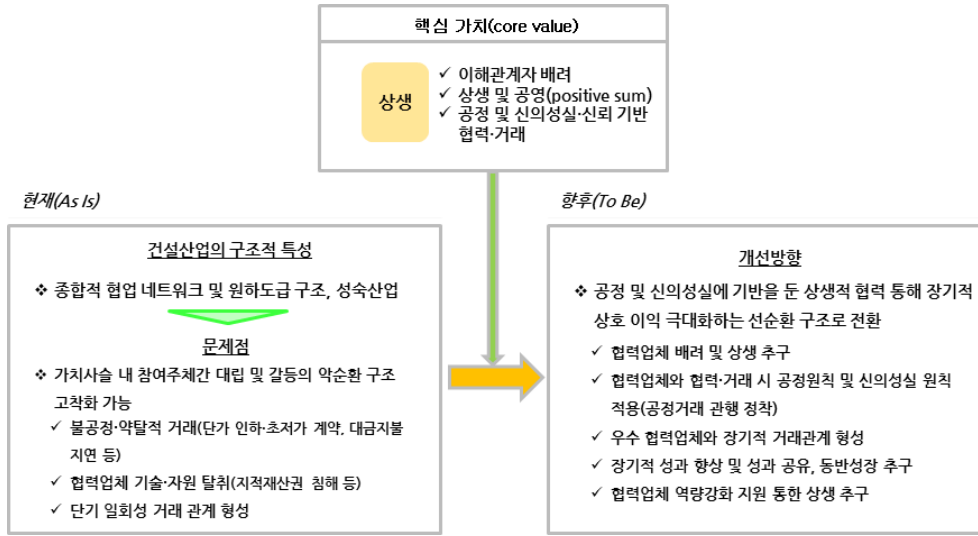
업은 2000년대 들어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³⁵⁾

③ 개선방향

건설산업 가치사슬 참여주체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의 경우 8대 핵심가치 중 상생 가치의 산업 내 공유·확산 및 정착, 즉 가치 대전환을 통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부적으로 상생과 관련된 세부적 가치 요소인 상생 및 공영, 신뢰 및 신의성실의 가치가 산업 내 문화로 정착될 경우 산업 가치사슬 내 참여주체 간의 대립과 갈등 구조를 공정과 신의에 기반을 둔 상생적 협력과 장기적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즉 건설산업 내 상생 가치가 공유, 확산될 경우 산업 내 거래·협업 기업 간 신뢰 제고와 거래비용 감소, 거래·협업 성과를 제고해 장기적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란 기업과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상 및 계약비용, 감시비용, 거래실패 위험의 회피비용 등을 말하며, 거래·협업 기업간 상생 가치의 공유와 실천을 통해 기업 간 신뢰가 쌓일 경우 이러한 거래비용이 모두 감소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가치사슬 내 건설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주체가 함께 이 가치 요소들을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할 때, 즉 가치 대전환이 일어날 경우 동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상생 관련 핵심가치 적용을 통한 건설산업 가치사슬 내 참여주체 간의 대립과 갈등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35) 이홍일, '성숙기 산업의 특성 및 기업 대응 전략 고찰과 국내 건설기업에의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7.

〈그림 4-6〉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대립·갈등 문제 개선방향



(6) 수주 및 인허가 의존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① 특성 및 문제점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인 동시에 인허가 의존적인 산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부패에 취약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역시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간 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정경유착, 비자금 축적, 뇌물 공여 등의 부패 이미지도 일정 부분 각인되어 있다. 우선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뇌물 공여에 취약한 산업이며, 또한 건설사업의 경우 진행 단계별 각종 인허가와 승인, 지도 및 감독 등의 행정절차가 많아 역시 부패에 취약하다. 수주업체 선정 기준, 인허가 및 승인 기준, 지도 및 감독의 절차와 지침 등 관련 규정이나 기준,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 심사위원 등의 재량권은 커지고, 이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은 증가한다. 담당 공무원,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뇌물 공여 가능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 사업계약 및 건설부문이 비즈니스 분야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언급되고 있다. 2011년 뇌물공여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패 발생 여지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토목 및 건설부문이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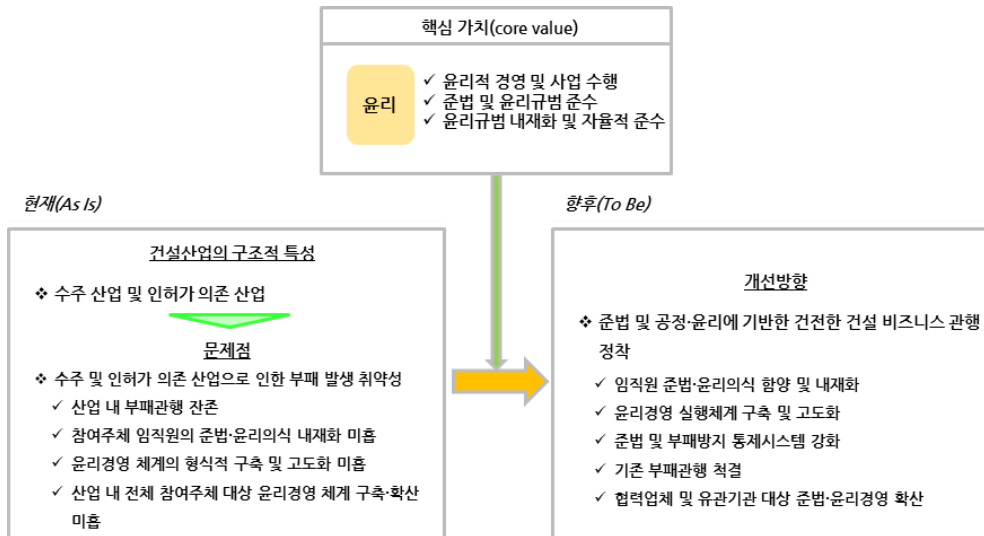
② 개선방향

건설산업의 수주 및 인허가 의존 특성으로 인한 부패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의 경우 8대 핵심가치 중 윤리 가치의 산업 내 공유·확산 및 정착, 즉 가치 대전환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세부적으로 윤리와 관련된 세부적 가치 요소인 내재화된 윤리규범 및 자율 준수, 그리고 재무·비재무 성과 균형, 지속가능성 및 장기적 성과 추구 등의 가치가 산업 내 문화로 정착될 경우 부패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산업 내 공정 및 윤리에 기반한 건전한 비즈니스 관행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거래비용 감소, 거래·협업 성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가치사슬 내 건설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주체가 함께 이 가치 요소들을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할 때, 즉 가치 대전환이 일어날 경우 동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 상생, 안전, 환경보전 등의 가치 공유·확산과 실천도 필요하지만, 윤리 가치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기업은 부패 발생에 취약한 산업적 특성과 다양한 부패 발생 요인들을 감안할 때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건설기업이 부패에 연루될 경우 과거 오랫동안 축적한 명성과 이미지를 한순간에 상실하고 대신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 운영과 성과향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패로 인한 산업과 기업의 부

정적 이미지는 장기간 지속되는 낙인효과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뇌물제공 및 수수, 불법 하도급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공공 입찰 과정에도 제약 받게 된다. 윤리 관련 핵심가치 적용을 통한 건설산업의 부패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7〉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부패 취약 문제 개선방향



(7) 성숙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① 특성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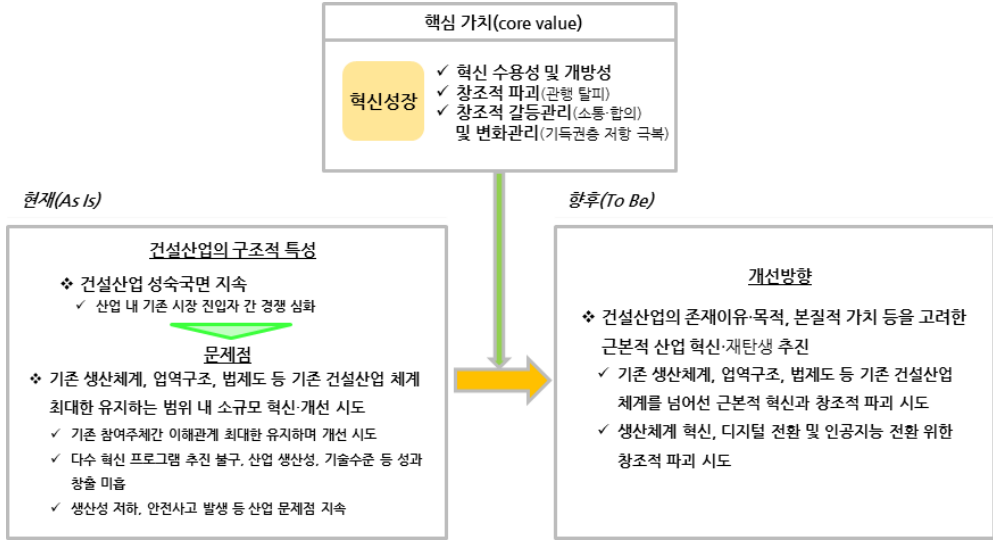
건설산업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건설시장이 건설경기 주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뿐 실질금액 측면에서 정체된 성숙국면을 지속했다. 이렇게 건설산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성숙국면을 지속한 결과, 건설산업은 혁신에 대한 수용성 및 개방성이 부족해지고, 기존의 관행 탈피와 창조적 파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었다. 혁신 추진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저항에 직면하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생산체계와

업역구조, 법·제도 등 기존 건설산업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혁신과 개선을 시도하고, 기존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창조적 파괴를 통한 산업 혁신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다양한 혁신 방안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성 및 기술 수준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는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② 개선방향

건설산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성숙국면이 지속되면서 산업 내 업역 및 경쟁구도, 생산체계, 법·제도 등 전반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체계와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 소규모 혁신을 시도하는 문제점의 경우 혁신성장의 가치 확산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혁신 수용성·개방성,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갈등 관리와 소통·합의 등 혁신성장 관련 가치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경우, 모든 참여주체가 산업의 재도약과 공동 발전을 모색하며 소규모 혁신과 개선을 뛰어넘은 근본적 산업 혁신·재탄생 추진을 시도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특히 기존 생산체계, 업역구조, 법·제도 등 기존 건설산업 체계와 구조를 넘어선 근본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시도가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혁신성장 가치의 확산은 무엇보다 인공지능 시대에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8〉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혁신성장 미흡 문제 개선방향



(8) 환경훼손 취약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① 특성 및 문제점

건설산업은 생산과정 자체가 불가피하게 자연을 일정 부분 훼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파괴를 최소화하는 환경경영 추진이 중요하다. 건설 및 철거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비산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점도 건설산업의 환경경영 추진이 중요한 이유이다. 도시의 고형 폐기물 중 40% 이상이 건설 및 철거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건설산업의 환경경영 추진이 중요하다.

건설자재 생산과 건설 시공 과정에서 많은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건설 생산품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이 많은 점도 건설산업의 환경경영 추진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 생애주기 기준 건설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하며, 탄소중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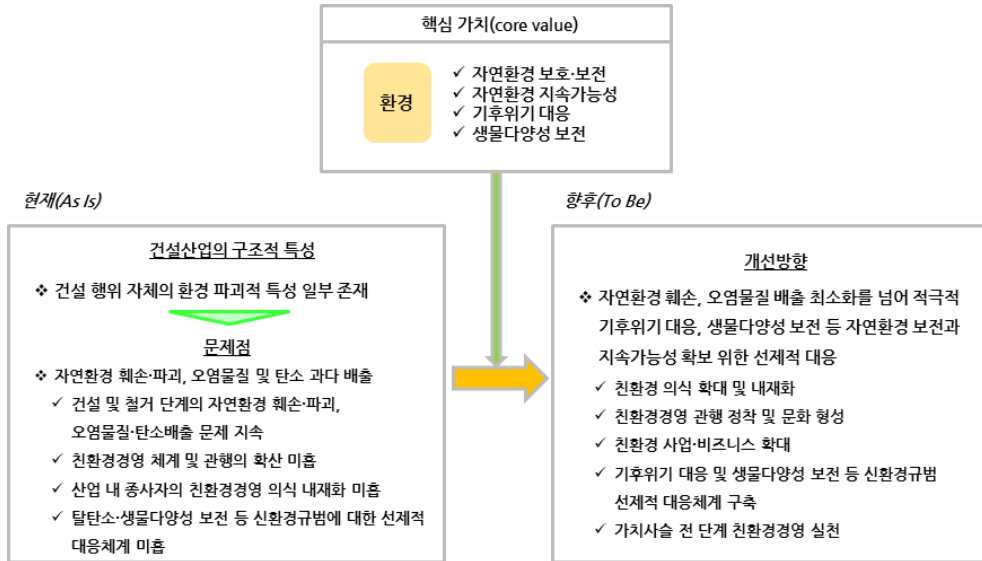
주요 대상인 이산화탄소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³⁶⁾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은 최근 ESG경영의 가장 핵심적 이슈 중 하나이므로 탄소배출이 많은 건설산업 특성상 환경경영의 이슈가 매우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② 개선방향

건설공사 자체가 태생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은 8대 핵심가치 가운데 환경 가치의 산업 내 공유와 확산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온실가스를 포함한 폐기물 감축,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 환경 관련 가치 요소가 산업 전반의 문화이자 비공식 규범으로 정착될 경우, 환경훼손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가치사슬 내 건설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주체가 이러한 가치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즉, 산업 전반의 가치 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관련 핵심가치 적용을 통한 건설산업의 환경훼손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36) McKinsey & Company(2021.7), "Call for action : Seizing the decarbonization opportunity in construction".

〈그림 4-9〉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자연환경 훼손 문제 개선방향



(9) 자본재 산업 특성·문제점과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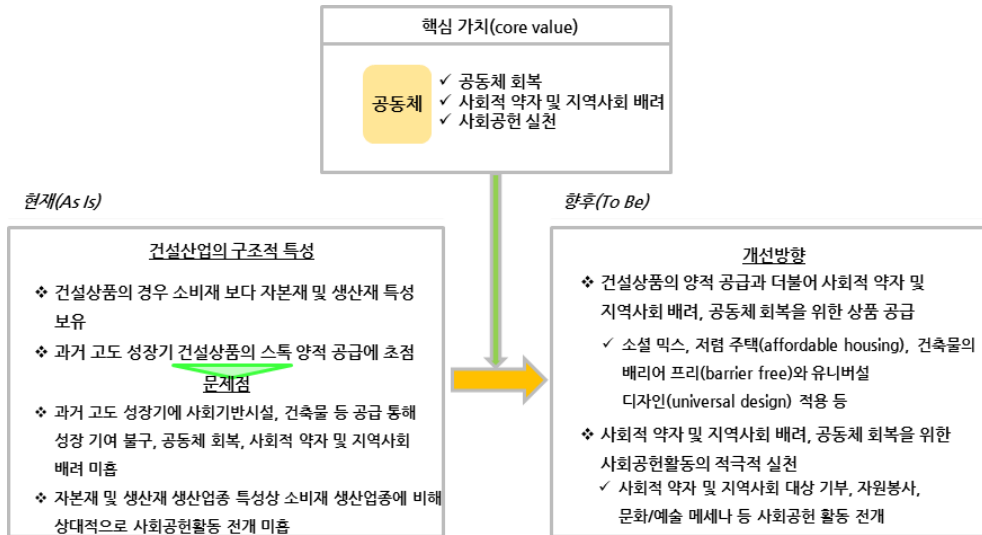
① 특성 및 문제점

건설산업은 자본재 생산 산업인 동시에, 그 생산물이 다른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재(중간재) 생산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비재 산업의 경우 고객의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재 혹은 생산재 산업에 비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다. 반면, 건설산업은 자본재 및 생산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소비재 산업에 비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다. 아직도 이러한 관성이 남아 과거 고도 성장기에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회복,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배려 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

② 개선방향

건설산업이 자본재와 생산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소비재 산업에 비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는 문제점과 과거 고도 성장기 건설상품 스톡의 양적 공급에 초점을 맞춘 관성이 남아 있는 문제점의 경우 8대 핵심가치 중 공동체 가치의 산업 내 공유·확산 및 정착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공동체 가치 적용을 통한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방향은 우선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배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 측면에서는 소셜 믹스와 저렴한 주택을 비롯해, 약자를 위한 장벽을 없애는 ‘배리어 프리’와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부, 자원봉사, 문화예술 메세나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10〉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공동체 가치 미흡 문제 개선방향



(10)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 및 문제점과 8대 핵심가치의 적용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8대 핵심가치는 그동안 건설산업 혁신을 어렵게 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린치핀(Linchpin)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8대 핵심가치의 적용과 확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가치의 대전환을 통해 건설산업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제2절에서 제시한 핵심가치 적용을 통한 8가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 그림에 포함된 세부 내용은 다음 절에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4-11〉 8대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향



(1) 실행과제의 구성

제2절에서 살펴본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은 건설산업의 태생적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건설산업의 혁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8대 핵심가치의 적용을 통해 설정한 구조적 문제점별 개선방향을 기초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실행과제를 도출하기 전 먼저 실행과제를 과제의 실행 단위와 과제 유형별로 성격을 구분하고, 이후 구조적 문제점별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과제의 실행 단위 관점에서 보면, 실행과제는 건설기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와 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 참여주체들의 임직원 의식, 업무 관행 등과 같은 구성원 의식 및 가치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 개별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과제이다. 둘째,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산업 단위의 공통·기초 교육, 소통·협의체 운영 등의 과제로 주로 산업 내 8대 핵심가치의 가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공통·기초 연구 및 교육 관련 실행과제이다.

다음으로 과제의 내용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행과제는 추진 조직체계, 교육, 운영제도 관련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추진 조직체계 관련 과제는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의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관련 과제,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의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관련 과제를 포

함한다. 둘째, 교육 관련 과제는 건설산업 내 모든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해 필요한 교육 관련 과제와 건설산업 단위 공통 교육 및 가치 확산 과제로 이뤄진다. 셋째, 운영제도 관련 과제는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에 필요한 과제와 건설산업 단위의 8대 핵심가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운영제도 관련 과제를 포함한다.

〈표 4-2〉 8대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개선 실행과제 구성

구분	내용
실행 단위별 과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내 모든 참여주체별 실행이 필요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내 모든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 위해 필요한 과제 : 참여주체별 상생경영, 윤리경영, 안전경영, 환경경영, 인권경영, 사회공헌 등 8대 핵심가치 실천 위한 과제 - 가치사슬 내 직접적 참여주체별(발주자,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엔지니어링 업계 등) · 임직원의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 위한 과제 -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 간접적 참여주체의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 과제 · 건설산업 단위에서 실행이 필요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단위의 8대 핵심가치 정착 위한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산업 단위의 공통·기초 교육, 참여주체 간 협업 및 소통·협업체 운영 등
과제 유형별 과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조직체계 관련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 위한 실행과제의 계획·추진 위한 조직체계 -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의 계획·추진 위한 조직체계(위원회, 협의회 등) · 교육 관련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내 모든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제 -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 위한 건설산업 단위 공통 교육 진행 과제 · 운영제도 관련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에 필요한 과제(상생이익공유제 등) - 건설산업 단위의 8대 핵심가치 정착 위한 운영제도(상생협력인센티브 등)

(2) 인권침해 취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①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 참여주체들의 임직원 의식, 업무 관행 등과 같은 인적 요소 개선을 위한 과제로 8대 핵심 가치 중 인권 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실행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축 및 재정비, 인권헌장 제정 및 적용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축 및 재정비 과제는 인권헌장 제정, 인권 실사, 인권 리스크 완화 및 구제조치 등 일련의 인권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경영 추진 체계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인도적 대우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생활임금 준수, 산업안전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인권헌장 제정 및 적용 외에도 인권경영 목표와 성과관리지표(KPI)를 도출하고 이를 관리·평가하는 체계 구축 과제, 사업부 및 현장 단위 인권경영 추진 조직을 구축·운영하는 과제가 필요하며, 임직원의 인권 관련 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활동과 더불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도 인권헌장의 기본 체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②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등의 과제로 주로 산업 내 인권 가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소의 개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인권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지속 보완, 참여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 산업 내 인력 대상 인권경영 체계

구축 지원 및 인권 교육 강화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인권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보완이 중요한데, 국가 기본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지속적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국가인권 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보고 지침 개정·보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인권 관련 규정의 지속 개정·보완 등이 필요하다. 또한, 2027년 발표 예정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인권 공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국내 공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공표가 중요하다. 이상의 다양한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에 대해 건설기업을 비롯한 산업 내 참여주체들이 인권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관련 정부부처와 협·단체 등에서 산업 내 인력 대상 인권경영 체계 구축 지원 및 인권 교육 강화, 건설기업 포함 참여주체들의 인권경영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안전사고 취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①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 참여주체들의 임직원 의식, 업무 관행 등과 같은 인적 요소 개선을 위한 과제로 8대 핵심 가치 중 안전 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실행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안전경영 추진 체계 구축 및 재정비,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적용, 안전문화 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 체계·기술지원 및 안전교육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안전경영 추진 체계 구축 및 재정비 과제는 안전경영 목표와 성과관리 지표(KPI)를 도출하고 이를 관리·평가하는 체계 구축 과제, 사업부 및 현장 단위 안전관리 추진 조직을 구축·운영하는 과제, 안전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도출 후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로 구성된다.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적용 과제는 세부 공정, 장비 등의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

는 과제이다. 안전문화 강화 과제는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과제이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도 안전관리 체계와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②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등의 과제로 주로 산업 내 안전경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소의 개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지속 보완, 참여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 기술인력 대상 안전관리 체계·기술 지원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안전관리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보완이 중요한데, 주요 구조체별 설계·시공·감리자가 효율적으로 검토·활용할 수 있는 각종 검측 리스트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참여주체별 안전 관련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발주자, 설계자와 시공자의 역할, 현장(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참여기술자, 기능인력)에서의 역할(의무와 권한)을 지속적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교육의 개선 및 내실화도 중요하다.

특히 건설산업의 안전이 건설기업 단독의 역할과 책임을 넘어 산업 참여주체들이 8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안전 최우선주의 철학을 공유하고, 안전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제고가 가능하다. 세계적인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사례에서도 발주자와 사업 참여주체들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안전분야의 성과 제고를 추진한 바가 있다. 영국은 건설기업 중심의 건설사업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1994년부터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사업 주체에게 안전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영국의 건설 산업 사고 사망자 수는 1995년 79명에서 2004년 69명으로 12.7% 감소하였다.³⁷⁾

(4)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 치중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①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 참여주체들의 임직원 의식, 업무 관행 등과 같은 인적 요소 개선을 위한 과제로 8대 핵심 가치 중 웰니스 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실행과제이다. 건설기업들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기본적 기능을 갖춘 건설상품의 충분한 양적 공급과 효율적 공급에 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수요자인 인간의 삶의 질과 예술·문화·역사적 가치,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다. 따라서는 웰니스, 곧 인간의 전인적인 행복·건강에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 삶의 질, 예술·문화·역사적 가치, 공동체 회복 등의 가치 제고가 가능한 건설상품 공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AI 기반 헬스케어, 수면 환경 관리, 개인 맞춤형 식단 등 웰니스 요소를 접목한 주거 모델을 선보이고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의 예술·문화·역사적 가치, 공동체 회복, 환경복원 등의 가치 제고가 가능하도록 개발도상국형이 아닌 선진국형 건설상품 공급자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설기업 외에 관련된 협력사와 협력기관 등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 상품의 웰니스 기능 제고를 위해서 건설기업의 내부 역량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의 병원, 스타트업을 포함한 헬스케어 기업과의 협력이

37) 최수영(2019.11),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필요하고, 원격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과거의 아파트가 물리적 공간이었다면, 웰니스 아파트는 ‘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 IT업체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경험(Digital Experience) 사업부’와 같이 기존 주택사업부와 별도로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대형 건설사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도 있다.

문화·예술·역사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과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시 해당 부지가 가진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거나, 기존의 설계팀 외에 ‘브랜드 익스피리언스(BX)’나 ‘라이프스타일 기획’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시공 전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인문학적 조사 역량과 아카이빙(Archiving)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건물을 ‘짓는’ 기술을 넘어, 기존의 건축물과 땅이 가진 문화·예술·역사적 가치와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읽어내고(Context) 그 위에 예술적 경험을 입히는(Content) ‘문화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회복 가치의 관점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의 다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진화와 더불어 주거 단지 혹은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 내 공간을 지역주민과의 공유·소통 공간으로서의 활용하는 등 사회 공동체와 커뮤니티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②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금융지원 등과 관련된 과제이다. 건설상품의 웰니스 가치, 문화·예술·역사적 가치, 공동체 회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 IT업체 등의 역할 수행과 협력이 필요하고, 정

부나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원격진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웰니스·커뮤니티 인증 체계’와 같은 인증제도를 통해 건설상품의 웰니스 가치 제고와 문화·예술적 경험, 역사적 상징성·가치,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금융, 녹색금융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투자 영역의 확대도 필요하다. 도시 및 건축,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관련 학과,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도심지 재개발과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에 문화·예술·역사적 가치와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제고하고, 주거 공간의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초 기술 및 표준 개발을 위한 공동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국가 기본계획과 지자체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관련된 제도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가치사슬 참여주체 간 상호 대립·갈등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①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 참여주체들의 임직원 의식, 업무 관행 등과 같은 인적 요소 개선을 위한 과제로 8대 핵심 가치 중 상생 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실행과제이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와 거래 시 표준계약서 적용 및 불공정 관행 신고·감사체계 운영, 우수 협력업체 등록·관리제도 실행, 우수 협력업체와 장기 상생을 위한 이익 공유 프로그램, 협력업체 상생경영 유도·지원 및 상생경영 공동 추진(공동 협의체 및 추진기구 구성·운영), 협력업체 경영·기술지원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협력업체 경영 및 기술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의 경우 경영 및 기술 지원과 더불어 교육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수 협력업체와 장기적 동반관계 형성을 위한 협력업체 평가시스템 고도화 역시 중요하다.

②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등의 과제로 주로 산업 내 상생경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소의 개선 과제이다.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이 필요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상생협력 장려를 위한 제도로서 불공정 거래 기업의 제재와 더불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보완 및 준수 유도, 불공정행위 제재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입찰과정 과정에 가점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협력주체 간 상생협력 장려를 위한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생산주체 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산업 단위 상생협의체 구성, 정보시스템 활용 하도급 질서 투명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 단위의 공동 기술개발 및 해외 공동진출, 상생협력 우수 모범사례 발굴·홍보 등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건설산업 혁신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에도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을 혁신의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영국은 1994년 ‘Constructing the Team’을 구성한 이후 생산성, 안전 등 건설산업 성과를 타 산업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건설 재인식 운동(Rethinking Construction)’이라는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20년 이상 지속하였다. 영국 건설산업 혁신의 주요 키워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발주자 혁신’, 그리고 ‘성과 측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설기업, 발주자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주체가 상호 대립이 아닌 협업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혁신의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영국 건설산업은 연간 50명 이하의 낮은 사고사망자 수, 공사비와 공기 준수율의 상승 등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해외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통합프로젝트 수행 방식인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방식의 경우에도 발주자와 사업 참여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성과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IPD 방식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등이 프로젝트 초기부터 한 팀과 같은 협업체계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발주, 수행하는 방식이다. IPD는 발주자와 시공사 등 사업 참여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성과 제고를 강조하며, 모든 참여자가 책임 및 성과를 공동으로 나누는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지향한다. IPD 방식의 경우 발주자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보장돼 있고, 프로젝트팀에 발주자가 함께 상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고 과정이 최소화되고 논의 과정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등이 공동 참여, 협업, 의사결정함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설계·시공단계 엔지니어링 문제 등의 사전적 해결이 가능하다. 결국 설계단계 기간 단축,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시공성 제고, 설계변경 문제 감소 등으로 공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6) 부패취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①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8대 핵심가치 중 윤리 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과제로 윤리경영 추진 및 정착을 통해 산업 내 참여주체별 소속 임직원의 의식과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하는 실행 과제이다. 건설산업 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인 산업 내 참여주체들의 의식상에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부패 발생에 취약한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기업을 비롯한 산업 내 참여주체들은 반드시 ESG경영의 중요한 한 축인 윤리 및 준법 경영의 이행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건설기업이 윤리경영을 강력히 실천할 경우 건설업체와 협력회사 사이에 부패행위 근절을

유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건설업체와 발주자, 공무원, 정치인 등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근절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산업 내 부패방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윤리경영 추진 및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과 행동 내재화를 위한 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윤리경영 인프라 요소는 대표적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윤리경영 리더십, 윤리현장·규범·행동지침 등의 윤리경영 가치 및 규정체계, 윤리경영 전담부서(혹은 전담자) 등 3가지이다. 윤리경영을 도입한 기업 중에는 윤리현장이나 윤리규범만을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기업이 많으나, 실질적으로 윤리경영을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설기업의 특성상 금품·향응·선물 접대 및 수수 관련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리경영 인프라를 갖춘 후에는 윤리경영을 실제로 추진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과 행동 내재화를 유도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윤리경영 운영시스템 중 건설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스템은 내부감사 및 내부자고발제도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 금품·선물 등의 자율신고 및 처리제도, 기업윤리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이다.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 운영시스템 외에 윤리경영 평가시스템, 전사적 윤리경영 추진조직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며, 협력회사로 적극 윤리경영을 전파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②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과제로서 건설관련 법령·규정·지침 등에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과제이다. 건설산업의 부패근절을 위해서 건설산업 참여주체들의 윤리경영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건설 관련 제도상의 다양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

다. 건설분야의 부패는 건설업 자체에 존재하는 부패에 취약한 몇몇 특성과 더불어 건설관련 법령·규정·지침 등에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 건설관련 참여주체들의 의식 및 사회 관행상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 등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부패발생에 취약한 건설업 특성인 수주업 특성과 진행단계별 각종 인허가와 승인, 지도·감독 등의 절차가 많은 특성 자체는 개선하기가 어렵지만, 부패를 유발하는 건설 관련 법령·규정·지침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분야에 부패를 발생시키는 건설관련 법령·규정·지침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살펴보면 법령·규정·지침의 불명확성과 복잡성, 정보, 행정절차 및 결과의 불투명성과 비공개성 등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건설분야에는 사업 및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다양한 법령과 규칙, 지침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법령, 규칙, 지침 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못해 담당 공무원이나 심의위원들의 재량권이 커지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사업 및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수많은 법령과 규칙, 지침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성과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 역시 뇌물 또는 향응 및 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부패 유발요인이다. 셋째, 각종 심의, 인허가, 승인, 검사 등의 과정에 필요한 정보, 행정절차 진행 과정, 조치 결과와 원인 등에 대해서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건설관련 법령·규정·지침상에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패 유발요인인 법·제도의 불명확성, 복잡성, 불투명성, 비공개성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불명확성 및 복잡성의 요인과 관련해서는 각종 인허가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수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별 명쾌한 판례나 기준, 처리지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단계별 다양한 관계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의 시기나 확인 내용, 지적 기준 등도

마찬가지로 보다 명쾌한 기준에 의해서 진행될 경우 관계 공무원의 재량권이 축소되어 결국 부패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불투명성이나 비공개성과 관련해서는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의 현재 진행 과정과 결과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이 객관적으로 가능할 때 부패발생 가능성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들의 의식 및 사회적 관행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감사·통제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

(7) 성숙산업의 혁신 미흡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①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 참여주체들의 임직원 의식, 업무 관행 등과 같은 인적 요소 개선을 위한 과제로 8대 핵심 가치 중 혁신성장 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실행과제이다. 건설기업은 기존의 수동적 수주 위주의 사업 관행을 벗어나 고객과 기술의 변화를 분석해 혁신적인 건설상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I)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아 기존의 사업 및 경영관행을 탈피해 창조적 파괴 수준의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건설기술과 로봇틱스 및 자동화 기술 접목을 통한 시공 생산성 혁신, CCTV 영상의 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혁신, AI 및 BIM 등의 기능을 활용한 공정 및 품질관리 혁신, 그리고 웰니스 가치에서 살펴본 스마트 기술과 헬스케어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한 건설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설기업 외에 관련된 외부 기업 및 기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나 데이터 분석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빅테크 및 클라우드 기업과의 협업, BIM 소프트웨

어 기업 등과 협력 통한 설계·시공 데이터 통합 및 디지털 트윈 수립, 스마트·웰니스 솔루션 제공을 위한 가전업체, 통신기업, IT업체와의 협업 등도 필요하다.

②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등의 과제로 주로 산업 내 혁신성장 가치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소의 개선 과제이다.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I) 시대에 건설산업이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창조적 파괴 수준의 혁신을 통한 성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체계, 업역구조, 법·제도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업 및 산업 간 장벽을 넘어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만이 혁신의 성과가 제대로 창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건설, 탈현장 건설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데이터가 연계된 ‘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를 구축해 BIM 데이터가 시공 로봇과 AI 활용 공정관리 모델에 즉시 연동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종합·전문 건설업 간의 경계나 전통적인 발주 방식은 협업과 혁신을 저해한다. 결국 건설산업 내 업역 경계 해체와 더불어 IT, 에너지, 로봇 기업도 프로젝트 공동 주관사가 될 수 있는 유연한 업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가시적인 노동력(폼셈) 기준의 대가 산정을 넘어 소프트웨어 및 AI 활용에 대한 ‘기술료’와 ‘디지털 설계비’를 비롯해 혁신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산업 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표준과 기초 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개별 건설기업 단위의 혁신성장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산업 단위의 실행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건설산업은 과거 노동집약적 수주산업의 범위를 넘어 기술집약적 첨단 서비스 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8) 환경훼손 취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도출

①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 참여주체들의 임직원 의식, 업무 관행 등과 같은 인적 요소 개선을 위한 과제로 8대 핵심 가치 중 환경 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실행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친환경경영 설계·구매·시공·철거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및 감축방안 도출·이행, 건설폐기물 유형별 관리 매뉴얼 마련·적용,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확대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친환경경영 목표 수립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및 자원 절감,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이 중요하며,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신규 관리 대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및 감축방안 도출·이행이 중요하다. 친환경경영 설계·구매·시공·철거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탄소 및 친환경 자재 선정·조달, 친환경 공법·구조 적용, 협력업체 환경 기준 제시, 건설폐기물 유형별 관리 매뉴얼 마련·적용 등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플랜트 등의 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②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등의 과제로 주로 산업 내 환경경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소의 개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환경 관련 각종 인증·검사 제도 재정비, 건설산업 환경 분야 공시기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강화, 환경 관련 우수 모범사례 발굴·홍보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 관련 각종 인증제도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ZEB) 등을 비롯해 환경 관련 다양

한 유사 제도의 중복, 상이한 내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건설산업 환경분야 공시기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서는 2024년 4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일반 공시기준과 기후변화 대응 공시기준, 향후 발표 예정인 생물다양성 공시기준 등과 관련해 건설산업 측면의 세부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2050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에 포함된 녹색건축 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³⁸⁾

(9) 자본재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 위한 실행과제

①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 참여주체들의 임직원 의식, 업무 관행 등과 같은 인적 요소 개선을 위한 과제로 8대 핵심 가치 중 공동체 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실행과제이다. 건설기업을 비롯한 산업 내 참여주체들이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과제는 우선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배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셜 믹스,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 건축물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장벽 없는 설계(문턱 제거, 경사로 등)를 의미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설계를 말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배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적극적 실천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대상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문화예술 메세나 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

38) 현재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등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 공사비를 감안할 경우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②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등의 과제로 주로 산업 내 공동체 회복 가치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소의 개선 과제이다. 건설산업은 고도 성장기 건설상품의 효율적인 양적 공급에 치중해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배려, 공동체 회복에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산업에 공동체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설기업 차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건설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 상생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 촉진책이 필요하다. 공공입찰 시 '지역 업체 협력 비중'이나 '지역민 고용률',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가점 비중을 높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게 만드는 사회적 가치 반영 발주 제도도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시 도서관, 돌봄센터 등 공유 공간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주거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인센티브 등이 있다. 지역 단위의 공동체 회복 우수 프로젝트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등의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는 과제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10) 소결

이상에서 도출한 8대 핵심가치(Core Value) 적용을 통해 도출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실행과제는 우선 실행 단위의 관점에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와 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실행과제는 내용 관점에서 추진 조직체계 관련 과제, 교육 및 홍보 관련 과제, 운영제도 마련 관련 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별도 표시(v) 하였다.

다만, 실행과제는 8대 핵심가치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핵심가치의 적용 관점에서 도출한 과제이다. 따라서 동 과제들은 핵심가치 적용 외에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 과제의 제약요인 분석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최종적 과제는 아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 과제는 구조적 문제점들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종적 과제 도출 과정에서도 8대 핵심가치 적용을 통한 과제 도출은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서에서 제안된 실행과제를 향후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의 기준들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선별적 추진이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윤리·안전 관련 추진 체계와 매뉴얼 정비, 교육 및 홍보 관련 과제 등은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운영 제도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관련 기초 조사 및 연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진 주체와 관련해서 실행과제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주체를 과제별로 제시하지는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운영 제도,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및 감독 체계 마련 등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적정 공사비와 공기, 상생조달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 외에 발주자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외 인권·윤리·안전 경영매뉴얼 등 경영체계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주체별로 자체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유관 협회, 연구기관 등에서 기초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 등에 대해 조사 연구해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개선 실행과제

핵심가치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추진 과제(안)	조직	교육	제도	건설산업 단위 추진 과제(안)	조직	교육	제도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축 및 재정비 - 인권현장 제정, 인권 실사, 인권 리스크 완화 및 구제조치 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 통한 인권경영 이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지속 보완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인권 관련 규정 개정·보완 - 인권기본계획 수립·이행,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보고지침 개정·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현장 제정 및 적용 -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등, 근로조건 준수 및 동등 보상 - 인도적 대우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기타 : 강제노동 금지, 생활임금 준수, 산업안전 보장, 지역주민/고객 인권 보호,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공시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인권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홍보·교육과 인권경영 체계 구축 지원 · 인권경영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경영 추진 체계 구축 및 재정비 - 목표/성과관리 체계, 추진 조직 체계, 과제도출/실행체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지속 보완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적용 - 세부 공정, 장비 등의 유형별 매뉴얼 마련·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화 강화 : 임직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 대상 안전관리 체계/기술 지원 및 안전교육 내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안전관리 체계·기술 지원, 안전교육 	√	√	√				
웰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상품의 웰니스 가치, 문화·예술·역사적 가치, 공동체 회복 가치 제고 역량 강화 - 주거공간의 스마트 웰니스 케어 플랫폼화 위한 사내 역량 강화 및 외부 기관(의료 및 IT업체 등) 협력 - 도심지 재개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상품의 웰니스 가치 제고 위한 제도적 지원 - 웰니스, 문화·예술·역사적 가치, 공동체 회복 가치 제고 프로젝트의 			√

핵심 가치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추진 과제(안)	조직	교육	제도	건설산업 단위 추진 과제(안)	조직	교육	제도			
	사회기반시설 조성 시 해당 지역 역사적 자산 조사·아카이빙 역량 강화, 지역 커뮤니티 생태계 복원 시도 - 문화예술적 가치 제고 위한 유명 디자이너 협업 및 기존 설계팀 외 라이프스타일 기획 및 디지털 경험 제공 역량 제고				인증·인센티브 제공(예시: 웰니스·커뮤니티 인증제도)						
					· ESG금융, 사회적 책임투자 등을 통한 관련 프로젝트 금융지원				V	V	V
					· 첨단·원격 스마트 헬스케어 기초 기술·표준의 산학연 공동개발						
					·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웰니스, 문화·예술·역사적 가치, 공동체 회복 가치 제고 과제 포함·이행						
상생	· 협력업체와 거래/계약시 표준계약서 적용 및 불공정 관행 신고/감사체계 운영	V		V	· 공정거래 질서 확립(표준계약서 보완, 불공정행위제재 등)			V			
	· 우수 협력업체 등록/관리 제도 실행			V	· 협력주체 간 상생협력 장려 제도 마련(입찰 과정에 가점 제공 외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V			
	· 우수 협력업체와 장기적 상생 위한 이익공유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V	· 건설산업 단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V					
	· 협력업체 ESG경영 유도/지원 및 ESG경영 공동 추진(공동 협의 및 추진기구 구성/운영)	V			· 상생협력 우수 모범사례 발굴/홍보		V				
	· 협력업체 경영/기술지원 위한 상생 협의체 구성/운영	V	V		· 정보시스템 활용 하도급 질서 투명화			V			
					· 공동 기술개발 및 해외공동진출 등	V		V			
리더	· 윤리경영 가치/규정 고도화(윤리헌장/규범/행동요령)			V	· 건설사업 진행단계별 관련 법령/규정/지침상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 제도의 불명확성, 복잡성, 불투명성 등 개선 - 행정절차 및 결과의 불투명성과			V			

핵심 가치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추진 과제(안)	조직	교육	제도	건설산업 단위 추진 과제(안)	조직	교육	제도
					비공개성 개선			
	· 윤리경영 추진 조직 및 준법/윤리감독 조직 운영	√			· 감사/통제시스템의 강화 및 효과적 운영	√		√
	· 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내부감사 및 고발제도, 신고채널 운영 - 청탁·뇌물·금품 향응 수수 및 접대금지 규정 운영 - 윤리의식 제고 교육/소통체계 구축 -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윤리경영 전파(청렴이행 동의서/사이버 신문고/포상제도 등 운영)		√	√	· 부정/부패행위의 처벌규정 강화			√
혁신 성장	· 건설상품의 혁신적 솔루션 제공 역량과 조직문화 강화 - 스마트 건설 기술과 로보틱스 및 자동화 기술 접목을 통한 시공 생산성 혁신 - CCTV 영상의 AI분석 기술 등 활용 안전관리시스템 - AI 및 BIM 등 기능 활용 공정 및 품질관리 혁신 -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접목 건설상품 고부가가치화	√	√	√	· 혁신성장 지원 위한 기존 생산체계, 업역구조, 법·제도 등의 개선 - 스마트 건설, 탈현장 건설의 성과 창출을 위한 건설업역 및 발주방식 혁신 - 건설기업과 IT·서비스·로봇 등 타 산업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가능한 제도 마련 - 소프트웨어 및 AI 활용 등에 대한 대가 근거 마련 등			√
					· 인공지능 전환 기술 적용 위한 표준과 기초 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환경	· 친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 탄소배출 감축 / 에너지 및 자원 절감,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친환경 자재 사용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및 감축방안 도출/이행				· 환경 관련 각종 인증/검사 제도 재정비 - G-SEED, ZEB 인증 연계 강화 등			√
					· 건설산업 환경분야 공시기준 세부			

핵심 가치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추진 과제(안)	조직	교육	제도	건설산업 단위 추진 과제(안)	조직	교육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및 친환경 자재 선정/조달, 친환경 공법/구조 적용, 협력업체 환경기준 제시 등 - 건설폐기물 유형별 관리 매뉴얼 마련/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확대	√		√	·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강화			√
					· 환경 관련 우수 모범사례 발굴/홍보		√	
10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배려, 공동체 회복 위한 건설 솔루션 제공 - 소셜 믹스,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 건축물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상생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 시행 - 공공입찰 시 사회적 가치 반영 발주 제도 검토 - 주거 공동체 회복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인센티브 제공 - 지역 단위의 공동체 회복 우수 프로젝트 사례 발굴·홍보 등 		√	√
	·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대상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문화예술 메세나 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 시행	√		√				

주 : √표는 실행과제의 유형을 조직, 교육·홍보, 제도 관련 과제로 구분해 표시함. 실행과제는 8대 핵심가치의 적용 관점에서 도출한 과제(안)이며,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 과제의 제약요인 분석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최종적 과제는 아님.



05

맺음말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해 왔다. 1990년대 연이은 대형 시설물 붕괴 사고와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시장 위축이 혁신 논의를 촉발시켰다. 1999년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부터 2021년 ‘2030 건설산업 비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선진화 전략과 혁신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수직·수평적 업역 세분화, 참여주체 간 갈등, 선진국 대비 낮은 생산성, 부정적 산업 이미지 등 고질적인 문제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건설산업은 여전히 혁신이 화두이다. 건설산업은 왜 혁신의 구호를 아직까지도 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서를 저술하게 된 근본적 이유이기도 했다.

본서는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이 건설산업의 태생적 한계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보다는 혁신 성공의 핵심 축인 린치핀(Linchpin) 중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서는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전략과 방안들에 반복적으로 포함된 과제에 주목하는 대신, 기존의 혁신 방안들에서 다루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이것이 건설산업 혁신성공의 린치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건설산업 혁신 전략과 방안들을 살펴본 결과, 생산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관련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나, 산업 구성원들의 의식 및 가치의 변화와 관련된 과제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체계 개편이나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산업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혁신 성공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산업 혁신의 성공요인과 국가 및 사회 혁신

의 성공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혁신 수용성과 개방성, 저항에 대한 변화관리 등 구성원의 의식과 가치의 변화가 결정적 성공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건설산업 혁신 성공의 린치핀 중 하나가 건설산업 구성원의 가치 대전환(Value Transformation)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즉 기존에 낡은 가치를 버리고 미래 건설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핵심가치를 산업의 보편적 문화이자 비공식 규범으로 내재화하는 가치 대전환이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 곧 건설산업 재탄생 성공의 린치핀일 수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가치 대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 혁신 성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산업 구성원들의 공유가 필요한 핵심가치(Core Value)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동 핵심가치를 건설산업 구성원들이 공유 및 내재화하고, 산업 내 모든 참여주체가 핵심가치에 기초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과제들을 도출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본서는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했다. 즉 건설산업 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관 변화가 심리·사회적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건설산업 차원의 자료 검토를 넘어 사회학 및 인문학적 관점을 포함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건설산업을 넘어선 일반적 산업의 혁신 성공요인과 국가 및 사회의 혁신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건설산업 혁신 성공에 필요한 가치 요소를 도출하였다. 인간다운 삶을 성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 관점에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며,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는 건설산업의 본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요소를 고찰했다. 또한 이외에도 ESG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설산업의 새로운 가치 요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가치 요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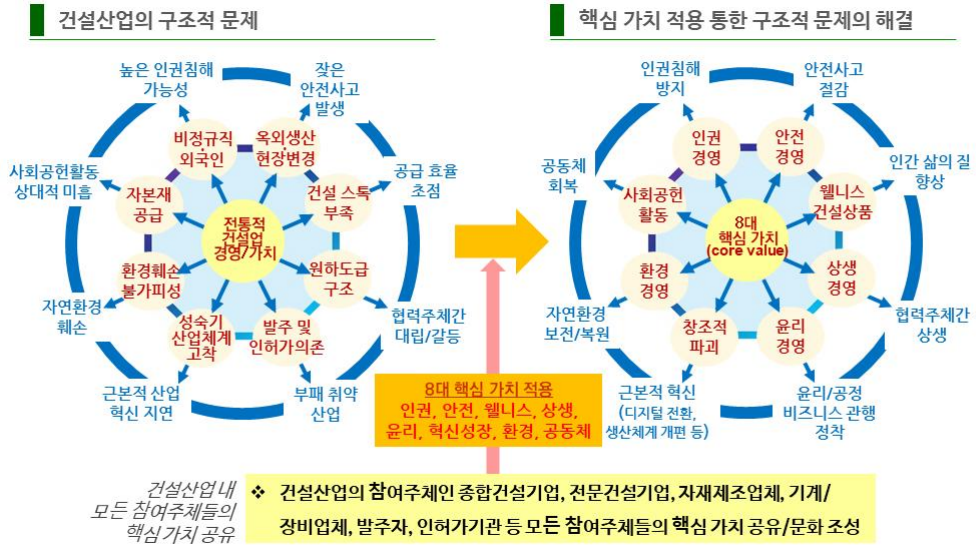
대로 최종적으로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을 위한 8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8대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 및 삶의 질 관련 3대 가치(인권·안전·웰니스), 건설산업을 신뢰와 상생 기반 위에 다시 세우는 사회적 자본 관련 2대 가치(상생·윤리), 산업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가치인 혁신성장,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관련 2대 가치(환경·공동체)로 이뤄져 있다.

본서에서는 이 8대 핵심가치들을 적용해 그동안 건설산업의 혁신 성공을 저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건설산업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은 지난 2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건설산업의 혁신이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하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에 8대 핵심가치를 적용할 경우 해결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장 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여성 노동자 등 인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의 경우 인권 가치, 세부적으로 인권 보호·존중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산업 내 공유, 확산될 경우 점차 개선될 수 있다. 주로 옥외생산을 하고, 생산현장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은 인간생명 중시, 안전 최우선주의 등 안전 가치의 산업 내 공유·확산될 경우 점차 개선되고 건설 안전 및 지역사회 안전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산업 성장기 건설상품의 양적 공급과 기능 및 효율성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수요자인 인간의 행복 및 삶의 질에 대한 기여, 기본적 기능 외의 예술·문화·역사적 가치 제공이나 공동체 회복 등이 미흡했다. 이는 인간 삶의 질, 예술·문화·역사적 가치, 공동체 회복 등의 가치, 곧 전인적인 행복·건강과 관련된 웰빙 내지 웰니스에 가치를 부여할 경우 양적 공급과 기능 및 효율성을 우선시 하던 문제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종합적 협력 네트워크 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산업 내 참여주체 간 대립 및 갈등, 거래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은 산업 내 상생 가치, 세부적으로 상생 및 공영, 신뢰 및 신의성실 등의 가치를 공유·확산하고 실천할 경우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수주산업인 동시에 인허가 의존적인 산업 특성상 부패에 취약한 문제점은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여 윤리규범의 내재화와 자율적 준수가 이뤄져 산업 내 윤리적 수준 자체가 향상될 경우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성숙국면을 지속하며 혁신에 대한 수용성 및 개방성이 부족하고, 기존의 관행 탈피와 창조적 파괴가 어려운 문제점,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히는 문제점의 경우에도 혁신 수용성 및 개방성,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성장, 혁신을 위한 소통·합의 등과 같은 혁신성장과 관련된 가치의 확산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생산과정 자체가 불가피하게 자연을 일정 부분 훼손하는 특성과 문제점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가치로 산업 내 공유하고 확산할 때 환경훼손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은 자본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소비재 산업에 비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는데, 이 또한 공동체 가치, 세부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배려와 사회공헌, 공동체 회복의 가치가 산업 내 공유, 확산될 경우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지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림 5-1〉 8대 핵심가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가능성



본서에서는 8대 핵심가치를 적용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향뿐만 아니라 실제 구조적 문제점들 개선할 수 있는 실행 과제(안)도 도출해 제시했다. 이를 통해 8대 핵심가치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했다. 실행과제는 우선 과제의 실행 단위 관점에서 건설기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와 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구분해 제시했다. 첫째, 산업 내 개별 참여주체별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 참여주체들의 임직원 의식, 업무 관행 등과 같은 구성원 의식 및 가치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 개별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한 과제이다. 둘째, 건설산업 단위에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 기초 기술 R&D, 산업 단위의 공통·기초 교육 등의 과제로 주로 산업 내 8대 핵심가치의 가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공통·기초 연구 및 교육 등의 실행과제이다.

다음으로 실행과제는 과제의 내용 관점에서 추진 조직체계, 교육, 운영제

도 관련 과제로 구분해 제시했다. 첫째, 추진 조직체계 관련 과제는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실행과제의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관련 과제, 건설산업 단위 실행과제의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관련 과제를 포함한다. 둘째, 교육 관련 과제는 건설산업 내 모든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을 위해 필요한 교육 관련 과제와 건설산업 단위 공통 교육 및 가치 확산 과제로 이뤄진다. 셋째, 운영제도 관련 과제는 건설산업 내 참여주체별 8대 핵심가치의 공유·확산 및 실천에 필요한 과제와 건설산업 단위의 8대 핵심가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운영제도 관련 과제를 포함한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8대 핵심가치는 그동안 건설산업 혁신을 어렵게 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건설산업 재탄생을 촉진할 수 있는 린치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거버넌스 체계의 대전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기술 대전환과 함께 산업 가치의 대전환이 이뤄질 경우 건설산업 재탄생이 비로소 완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8대 핵심가치의 적용과 확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가치의 대전환을 통해 건설산업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과 건설산업 재탄생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참고 문헌]

- 국립현대미술관(<https://www.mmca.go.kr/>), ‘그림일기 :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 건축사사무소 아라가야, 세계의 건축가 ‘루이스 칸’, 2023.4.
- 김수삼 편저, ‘건설산업 왜 아직도 혁신인가’, 생각의 나무, 2010.5.
- 김세원 외, ‘혁신 클러스터 성공요인과 개도국 클러스터 지원 사례’, 산업연구원, 2014.12.
- 김용환, ‘해외 주요 산업클러스터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2호, 2005.6.
- 김위찬·르네 마보안, ‘블루오션 전략’, 교보문고, 2005.4.
- 김한수, ‘호모 컨스트럭투수(Homo Constructus)’, 보문당, 2026.2.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 미래전략 보고서’, 2017.
- 박태성, ‘산업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과제’, KIET 산업경제, 2018.7.
- 성태경,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비스연구, 제10권 제1호, 2020.3.
- 승효상, ‘건축은 인문학이다’, 중앙일보 기고, 2002.01.30.
- 이복남·이슬기, ‘한국건설의 미래 생태계 설계 주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022.12.
- 이성수, 김수근 건축철학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회지, 2008, vol.11, no.3.
- 이영수, ‘니체의 “위버멘쉬”(초인)에 대한 원형(元型) 탐색’,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제58집, 2009.10.
- 이일형, 키쇼 쿠로가와(黒川紀章)의 건축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6, No.1, pp. 827-836, 2015.
- 이흥일, ‘성숙기 산업의 특성 및 기업 대응 전략 고찰과 국내 건설기업에의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7.
- 이흥일, 박철한,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7.
- 이흥일, 이종한,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을 위한 ESG경영의 가치

- 탐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12.
- 정기용, 감응의 건축, 현실문화 출판, 2008.10.15.
 - 최수영,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11.
 - 최종천, ‘니체의 가치전환’, 한국니체학회, 니체연구 제17집, 2010.3.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관한 연구’, (2022),
 - 한국개발연구원(KDI), ‘INNOVATIVE KOREA: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2024.3.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 2025.3.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재탄생 2.0 총론’, 2026.4.
- Joel Mokyr, A Culture of Growth: The Origins of the Modern Economy, 2016.
 - Lyon, T. P., & Baruffi Jr, R. A., ‘Creating a Plug-In Electric Vehicle Industry Cluster in Michigan: Prospects and Policy Options’, Michigan Telecomm. & Tech. Law Review, 2011.
 - McKinsey & Company, ‘Call for action : Seizing the decarbonization opportunity in construction’, 2021.7.
 - Philippe Aghion & Peter Howitt,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1992.
 - Thomas H. Brobjer, Nietzsche's Revaluation of All Valu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12.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

저자 이홍일

발행 2026년 6월 30일

발행인 이충재

발행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건설회관 11, 9층)

전 화 : 02)3441-0600(代)

홈페이지 : <http://www.cerik.re.kr>

인쇄소 수-커뮤니케이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건설회관 11, 9층)
www.cerik.re.kr

비매품



9 788984 252370
ISBN 978-89-8425-237-0